

이재운
이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당신의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 FDIC
뱅크 오브 호프
초이스 & 프리미어 체킹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3 제 6800호

Thursday, November 9, 2023 A

민주당, 경합주 선거·투표 잇단 승리

트럼프 텃밭 오하이오, 낙태권 통과 바이든 “다시 자유 보호에 투표한것” 민주당, 버지니아 주의회도 장악 내년 대선 전초전서 기세제압



오하이오주 선거에서 7일 밤 낙태권 보장안이 통과된 후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여론조사에서 밀리면서 내년 대선에 적신호가 켜진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세를 보였던 주에서 민주당이 옹호해온 낙태(임신 중단) 주민투표와 주의회 선거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

7일 오하이오주에서 치러진 낙태권 보장 개헌을 위한 주민투표는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오하이오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대통령을 각각 8% 포인트 차로 앞서면서 확실한 공화당의 ‘표밭’이 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후 성명을 내고 “미국인들은 다시 근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데 투표했고, 민주주의의 승리를 거두었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오하이오

주 주민들과 미국의 유권자들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화당원’이 뽑은 사람에 의한 낙태 금지 입법 시도를 거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가 공화당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초강경 보수 공화당원을 의미한다.

오하이오주는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고 낙태권 존폐에 관한 결정 권

한을 각 주로 넘긴 이후 낙태권 보장을 결정한 7번째 주가 됐다. 또 이날 오하이오주는 미국에서 24번째로 의료용이 아닌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같은 날 버지니아 주의회 상·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양원 모두에서 다수당에 올랐다. 선거 전까지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였다. >> 관련기사 3편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서유진 기자 >> 2편 ‘민주당 승리’ 로 이어집니다

“내 뿌리 한국, 미국서도 안 잊어 100만 달러, 방산연구 써달라”

국방과학연 유산기부 약정 강춘강씨



지난 8월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 박종승 소장 사무실에 해외에서 온 편지 한 통이 전달됐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소인이 찍혔다. 평소 소장실엔 ‘ADD와 협력하고 싶다’라거나 ‘ADD에 납품하고 싶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당시 수상한 해외 우편물 신고가 잇따랐던 때였다. 그런데도 무엇에 끌린 듯 소장실 비서가 편지를 열었다.

‘박종승 소장님께 드립니다. 제 이름은 강춘강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편지에서 강춘강(80·사진) 여사는 손글씨로 유산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한국의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7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한 뒤 ADD에 기부약정서를 전달했다.

강 여사를 지난 6일 만나 사연을

들었다.

-왜 기부를 결심했나.

“미국에선 나이가 들면 유연장을 미리 작성하면서 유산을 어떻게 쓸지 정하는 문화가 있다. 나도 유연장을 고민하던 중 한국의 무기가 풀란드에 많이 수출됐다는 뉴스를 접했다. 너무 반가웠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려면 ADD의 국방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늘 생각했다. 그래서 사후에 받게 될 개인연금 전액을 ADD에 기부하겠다고 결심했다. 내 돈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보다는 한국을 지키는 데 쓰이길 바란다.”

강 여사는 긴 비행시간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고 한다. 50여년 만에 ADD를 다시 찾기 때문이었다.

이철재 국방산업기자 >> 14편 ‘강춘강씨’ 로 이어집니다

글렌 영킨 주지사 대선 출마 좌절

“낙태 이슈로 공화당 침몰”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사진)가 총선 패배로 인해 대선 출마 동력을 상실했다. 영킨 주지사 진영에서는 아직까지 선거 패배를 시인하는 성명서를 내지 않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임신 15주 이후 낙태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레드 플레그 법률 등 총기규제법을 폐지하는가 하면, 공립학교



에서 성적체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금지하는 등 이념 정체성을 강조하는 문화전쟁을 예고했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의 보수 색채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주 상원 다수당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 지위마저 빼앗겨

사실상 조기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2024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으나 애초부터 대선 출마 가능성이 희박했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1월 취임 초부터 주지사 단일제 규정으로 재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출구전략으로 삼아왔다.

>> 2편 ‘영킨’ 으로 이어집니다



G7 외무장관 “가자지구 교전 중지... 북, 러에 무기제공 중단을”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8일 도쿄에서 열린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교전 중지, 조건 없는 인질 석방 등을 촉구했다. 또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네타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 “가자시타는 포위됐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적전 중”이라고 밝혔다. [AFP=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김종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센터빌 703-830-4422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해입
순금 여기 팔리지 못함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H-Mart 내
301.792.5615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완벽한 전문인 구성 및 워싱턴 지역 최고 공격 마케팅 전략 부동산 팀

부동산 명품 브랜드,

REALTYONEGROUP 슈나이더팀 부동산을 찾으십시오!

줄리엣 리
703.303.2737
juliet@DwellWashington.com
아무것도 막부러지께

이수경
410.979.7077
sarah@DwellWashington.com
차분하고 정화하게

강상구
571.314.6222
sk@DwellWashington.com
조용하고 강하게

앤젤라 윤
571.375.9567
angela@DwellWashington.com
빈틈없이 성실하게

서동진
571.499.9843
jin@DwellWashington.com
끝까지 정성으로

박주연
703.965.6844
jp@DwellWashington.com
따뜻하게 친구처럼

엠마 리
571.634.1778
emmar@DwellWashington.com
친절하고 상화하게

정필도
410.925.2040
kenry@DwellWashington.com
신용과 믿음이 전부입니다

최재영
571.882.4280
aiden@DwellWashington.com
예의주치 결과만족

장성진
410.858.1688
sean@DwellWashington.com
한 마디와 바른 생각으로

내집장만 부동산 세미나
MD 11월 13일(월) 5:45pm 5850 Waterloo Rd. #140 Columbia, MD 21045
VA 11월 20일(월) 5:45pm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주 택 사업체
상가/사무실/아파트/공장/창고 주재원 렌딩 서비스
공장/사무실/창고 설립 투자 컨설팅

뜻을 함께하는
에이전트 온비!
대표
승경호
703.928.5990
k@dwellwashington.com
성실함과 정성들 다해

ONE REALTYONEGROUP CAPITAL

7925 Jones Branch Dr. #3100
McLean, VA 22102
703.928.5990

Realty One Group은
미 전국에 15000명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하는
미국 부동산 회사입니다

THE SCHNEIDER TEAM
www.dwellwashington.com

내 집 장만
부동산 전문 소사지

야당, 노란봉투·방송3법 강행... 여당, 필리버스터 예고

오늘 본회의 상정 단독처리 시도
오송참사 등 국정조사 3건도 추진

168석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한다. 민주당이 본회의 법안 일방 처리를 시도하는 건 지난 4월 27일 간호법·의료법 통과 이후 6개월여 만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및 민주당 출신 무소속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을 넘어 지지하기엔 역부족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 원정업체로 확대하고, 불법 과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별 귀책사유·기여도에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이

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국회 외에 미디어 학회나 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노란봉투법은 경제계와 여당이 반대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개 단체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인 홍석준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개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는 데 13일까지 닷새가 걸릴 전망이다. 일단 국민의힘이 법안별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면, 24시간 이후야 민주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홍의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하기로 했다. [뉴시스]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동의로 강제 결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각자 본회의장을 공백 없이 지키기 위해 주말을 포함한 '당번 조'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오송지

하차도 참가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시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등 3개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당론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또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통과하기로 했다. 김포시 5호선 연

장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이견 없이 당론이 됐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TF) 소속 주철현 의원이 각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 위법 검사에 대한 탄핵 검토 의견을 의총에 보고했다. 하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복수의 민주당 의원은 "의총에서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며 "쟁점은 검사 탄핵 대상을 몇 명으로 하는냐였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명분 없는 탄핵은 또다시 국정을 혼란 속으로 내몰 뿐"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탄핵 중독'이라는 비야냥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환 기자

“이준석 신당 생기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지지층 더 이탈”

내부 여론조사 결과에 야당 내 긴장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

면, 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최근 '이준석 신당' 출현을 전제로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를 조사한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지도부에 공유했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층을 크게 적 극지지층과 소극지지층으로 분류했을 때 소극지지층에서 '이준석 신당'으로 상당히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 모두 수도권보다 영호남권에서 신당 이탈률이 높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빠진다"며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이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21~22

일 실시한 무선 ARS 방식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유승민 신당' 창당 시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해당 조사에선 민주당 지지자는 17.9%가, 국민의힘은 13.9%가 신당을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 이탈층은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

을 받는 듯한 모습에 공감해 신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당장 '이준석 신당'이 생기면 양당이 실망하는 층이 꽤 몰리겠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 다시 '윤석열 심판론'으로 우리 당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 일각에선 총선 지역구 투표에선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신당을 찍는 이른바 '교차투표' 가능성이 클 것이라n 얘기도 나온다.

성지원 기자

▶ 1번 '민주당 승리'에서 이어집니다.

버지니아 의회 선거의 핵심 쟁점 역시 낙태 이슈였다. 현행 주 법률은 임신 26주까지 낙태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주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주의회 양원을 장악한 뒤 임신 15주까지만 낙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데 이날 공화당의 선거 패배로 이같은 개정은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버지니아주 민주당 운영위원장인 수잔 스웨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영킨 주지사와 공화당을 버지니아 주

민들이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켄터키주에서도 민주당 소속 현 앤디 베시어 주지사가 재선에 성공했다. 또 공석이었던 펜실베이니아주 대법관 한 자리를 채우는 선거에서도 민주당 소속으로 그동안 '낙태권 수호자'를 자처해온 덴 맥커패리가 당선됐다. 반면 공화당은 주요 선거 가운데 미시시피주 주지사 선거에서 테이트 리브스 현 지사가 재선에 성공한 것을 위안으로 삼아야 할 처지가 됐다.

▶ 1번 '영킨'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작년부터 타주로 선거 유세형 외유에 몰두해 왔으나 낮은 지명도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세에 눌려 고전해 오다가 막판까지 대선 출마 선언을 하지 못하고 총선 승리 후 출마가능성을 흘려왔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대선 출마 시한을 맞추거나 심지어 추천인 서명 작업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결국 영킨 주지사에게 총선은 대선 불출마를 위한 출구전략이었다는 역설이 되고 말았다.

영킨 주지사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대선 출마가 좌절되면서 국정운영 동력을 급격

하게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된다. 낙태 찬성 여론이 70%에 달하는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영킨 주지사가 대선 출마라는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 낙태 금지 이슈를 던지며 무리수를 뒀으로써 공화당 공멸의 결과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회기 공화당이 성사시킨 보수적 법률을 폐지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영킨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의회 정치가 실종돼 사실상 교착 의회 상태에 놓이고 자신의 정책 의제 대신 민주당 공격을 방어하는데 급급한 식물 주지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욱재 기자

워싱턴 날씨 (°F)

10일(금)	54~41	13일(월)	58~42
11일(토)	59~39	14일(화)	59~37
12일(일)	54~36	15일(수)	59~39

11월 9일(목) 77~5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특정 RENT \$2,850/m 방3, 화장실2½,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특정 \$440,000 방2, 화장실2, 차고1, Under Contrac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방4, 화장실4, 차고3, 10에커, 멋진 플로리달!
---	---	---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내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통증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VA총선 민주당 승리... 하원 최소 51석·상원 21석 확보

지난 7일 열린 버지니아 총선에서 민주당이 2년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회복하고 상원 다수당을 수성했다.

민주당은 8일(수) 오후 1시 현재 하원 100석 중 51석의 승리를 확정지은 반면, 공화당은 42석에 그쳤다. 나머지 7석은 박빙 승부가 펼쳐져 개표 종료 전까지 승자 선언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7석 중 민주당이 최소 2석 이상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민주당의 최종 의석은 53-54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원은 민주당이 21석, 공화당이 18석을 확보했다. 상원 제24선거구에서는 97% 개표 결과 대니 디그스 후보(공화)가 민주당의 몬티 메이슨 현역 의원을 50.79% 대 49.21%로 앞서가고 있지만, 득표 차이가 크지 않아 '투클로즈 투 콜'(too close to call) 선언과 재검표가 예상된다.

버지니아 하원의회는 최근 4년 사이 다수당 지위가 세번이나 뒤바뀌는 등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거꾸로 어떤 정당도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선거 때마다 승자가 바뀌는 '바람개



7일 밤 민주당 지지자들이 개표 파티에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로이터]

비 의회'라는 조롱을 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9년 탈코트 노턴 주지사(민주) 재임 당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둬 양원을 접수해 주지사와 양원을 모두 차지하는 '삼관왕 시대'를 열었다. 민주당은 2020년 회기부터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메디케이드를 확대

하는 한편 여성 및 소수계 인권강화를 목적으로 각종 사법 개혁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2021년 선거에서는 역풍이 강하게 불어 글렌 영킨 주지사(공화)가 당선되고 하원에서 7석을 잃어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넘겨야 했다.

영킨 주지사와 공화당은 비판적인중이론(CRT)을 왜곡하는 등 보수 회귀 전략의 일환으로 각종 개혁조치를 되돌리려 했으나 임신 15주이후 낙태 금지법안 등 다시한번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함으로써 하원 다수당 지위를 2년마다 잃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집권할 때마다 버지니아 특유의 스윙스테이트 성격을 무시하고 이념 정체성 공세에만 골몰하다가 2년마다 이사집을 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페어팩스, 알링턴 카운티와 알렉산드리아 시티, 라우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동부 지역 등 대부분의 북버지니아 권역에서 상하원의원 의석을 싹쓸이했다.

민주당은 또한 공화당 현역의원이 버티고 있던 프린스 윌리엄과 라우던 카운티 서부 지역의 상원 제30, 제31 지역구를 되찾는 등 서부지역도 점차 민주당 색채를 띠어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페어팩스 카운티는 우편부재자 투표 등을 포함해 투표율이 49%를 기록했다. 라우던 카운티 47%,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38%, 알링턴 카운티 36% 등을 기록했다.

한편, 한인 후보들로 선거에 출마했던 문일룡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광역의원, 아이린 신 주하원의원(8선거구)도 무난히 당선의 기쁨을 안았다.

김욱재 기자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북한인권, 국제화 과정 필요"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7일 워싱턴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한인동포들과의 만남을 갖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원코리아네트워크(OKN, 헨리 송 대표) 주최로 마련된 행사에서 이 대사는 "올해는 유엔북한인권위선언 75주년, 비엔나유엔인권회의 30년, EU주도 북한인권결의안 20주년 및 한국난민법 시행 10년을 맞는 매우 의미있는 해"라면서 북한인권의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사는 북한인권문제의 열악함을 설명하며 식량난, 정보통제, 공개처형, 강제노동 등 북한내부의 문제를 포함해 현대판 노예제로 유흥되어지고 있는 해외노동자, 재외, 재중 탈북자들과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등 북한 정권이 외국인에게 저지른 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특히 재중 탈북자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은 조-중국경조약에 따라 예외없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으며 인신매매로 인한 여성들이 대다수"라며 "이는 국제난민법과 인도주의법 등에 어긋나는 매우 비인권적인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사는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인도



이신화(오른쪽 첫번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한인동포들과 면담하고 있다.

적 지원"이라면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인도적 지원을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 경제적 압박을 받는 강제수용소를 빚대어 "게토"에서 북한인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국제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북한 문제를 국제화 시키기 위해서는 탈북민에 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 글로벌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외화여대 영어영문학, 정치외교학 학사를 졸업하고 메릴랜드 대학 컬리지파크 국제정치학 박사,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CFIA) Post-doc, 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전 유엔르완다 독립조사위 사무총장 특별자문관,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김윤미 기자



유공포상 전수식 열려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포상 전수식이 지난 3일 주미대사관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사진에서 왼쪽 두번째부터 미주한인재단 워싱턴 로사 박 회장(대통령 표창), 석은옥 강영우장학재단 이사장, 노명화 글로벌 전략연구원 대표(이상 국무총리 표창)다. 전수식에서 조현동 대사(사진 맨 오른쪽)는 "차세대 동포들을 위해 더 큰 가르침을 새겨 달라"고 당부했고, 조기중 총영사(사진 맨 왼쪽)도 "훌륭한 역할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한인사회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사진=주미대사관 제공]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유니버셜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Member FDIC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려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동문 자녀 우대입학 금지법안 상원 제출

민주·공화 의원 공동 발의
“미국은 귀족제 나라 아냐”

부유층에게 유리한 입시제도라는 비판을 받은 명문대의 동문 자녀 우대제도 ‘레거시 입학제도’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민주당 소속인 토드 영(인디애나·공화당 팀 케인(버지니아)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동문 자녀나 고액 기부자 자녀에 대한 입학 우대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을 제출한 영 의원은 “미국은 귀족제도가 아닌 기회의 나라”라며 “레거시 입학제도는 사회적 배경이 든든한 지원자들을 위해 재능있고 명석한 어린 학생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여야 의원이 이 법안을 공동 제출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원에서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레거시 입학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워싱턴DC 정가에 확산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앞서 교육부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인종을 학생선발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 이후 하버드대 레거시 입학제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SAT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도 경제력 상위 1% 가정의 수험생은 다른 수험생들보다 합격 가능성이 34% 높게 나타났다.

축구선수서 미슐랭 셰프 변신 한인

프로 축구 선수를 꿈꾸다 유명 셰프가 됐다.

뉴욕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인 한국식 스테이크 전문점 COTE(한국어 발음 ‘꽃’)의 한인 셰프 데이비드 심(39)의 이야기다.

미슐랭 가이드는 지난 3일 심 셰프의 요리 철학과 인생을 다루는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본래 심 셰프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 대학생 때 브라질로 유학을 갔었는데 프로 축구팀에 선발되지 못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좌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우연히 명문 요리학교인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 캠퍼스 투어에 참여하게 됐다. 심 셰프는 “요리 산업과 스포츠는 닮은 데가 많았다”며 “강한 에너지, 경쟁심, 규율, 헌신 등이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라운드에서의 투지는 주방에서도 필요했다. 기본기를 익히려면 매일 수



데이비드 심 셰프(가운데)가 미슐랭 관계자들로부터 2022년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됨을 알리는 명패를 받고 있다. [COTE 페이스북]

시간씩 연습에 매진해야 했다. 이는 심 셰프를 요리의 세계로 빠져들게 했다.

그는 셰프를 ‘양날의 칼’이라고 표현했다. 새로운 길로 향하는 그는 그만큼 절박했다.

심 셰프는 “인생 후반기에 시작한 두 번째 직업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이 있었다”며 “때론 그 과정이 엄청나게 고독했고 그러한 시간 때문에 역설적으로 나를 돌아볼 수 있었고 주방에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요식 업계에서 한국의 문화와 균형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나름 미국식 요리의 기준이 있었다.

그러한 틀 안에서 한국의 맛을 진정성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지난 5월 열린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음식 봉사 단체인 ‘시티 하비스트’에서 대표 셰프를 맡았다. 미슐랭 식당 ‘COTE’의 주메뉴인 갈비 등 한국식 바비큐를 주민들에게 선보였다.

그의 요리 철학은 ‘진정성’이다.

심 셰프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월급을 받으면 동네 식당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갈비를 먹으러 갔었다”며 “아마 사람들은 양념 갈비를 준비하는데 꼬박 하루 넘게 걸린다는 사실을 모를 테지만 비록 그 과정은 모르더라도 환상적인 맛을 일관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 셰프는 “훌륭한 식사는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멋진 뷔페를 즐기며 스테이크와 스시를 마음껏 먹겠다”고 답했다. 장영지 기자

바이든, 아시안 선거 광고



바이든 캠프가 선보인 선거 광고에 등장하는 젊은 베트남 이민자 가정의 단란한 모습. [유튜브 영상 캡처]

내년에 재선을 치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안 이민자를 주인공으로 한 첫 선거 광고를 선보이며 아시아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아시안 유권자의 덕을 본 바이든 캠프지만 최근 이상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7일 NBC뉴스 방송 시간을 통해 처음 공개된 30초 분량의 이 광고는 고향 베트남을 떠나 미국으로 와서 힘들게 일하며 식당을 오픈한 부모의 뒤를 이어 사업체를 번창시키는 젊은 아시안 부부의 패밀리 비즈니스 이야기다.

광고는 미국에서 소수 민족 집단 중 사업체 운영이 가장 많은 아시안 사업주들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성실하게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고 가정을 꾸려 나간다는 메시지를 담아 전달했다.

바이든 재선 캠페인 매니저인 차베스로드리게스는 “우리의 첫 번째 광고인 ‘패밀리 비즈니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러 이번 광고 외에도 다양한 주제로 캠페인 광고를 내보낼 예정이며, 언어도 영어 외에 한국어, 중국어, 필리핀어 등으로 인쇄 매체와 TV, 라디오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재선 캠페인에서 직접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광고를 제작한 건 최근 들어 아시안 유권자들이 공화당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개 경합주 중 5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캠페인은 경합주의 승기를 가늠할 아시안 표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에서 0.3%포인트로 승리하며 4년 전 공화당에 내줬던 선거

인단을 획득했다. 퓨리서치센터는 그 덕분에 4년 전보다 84% 급증한 아시아계 유권자가 바이든을 지지했기 때문이라며 갈수록 초박빙으로 향하는 대선에서 아태계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유권자 그룹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아시안 정치력 신장 운동을 주도하는 비영리재단 APIA Vote가 지난해 실시한 아태 유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시안 유권자들의 44%가 민주당, 19%는 공화당, 29%는 무소속으로 나타났다. 한인은 민주당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 공화당 성향 응답자 비율은 30%였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카탈리스트(Catalist)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아시안 유권자들에 대한 민주당의 우위는 66%에서 59%로 하락했다고 발표하며 민주당에 경고를 내기도 했다. 장영화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담합 판결, 주택 중개 수수료 지각변동 조짐

집단소송 전국으로 확산 예상

주택 거래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받는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담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미주리주 배심원단은 지난달 31일 전국부동산중개협회(NAR)와 일부 주택중개업체에 중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18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해 배상금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미주리, 캔자스시, 일리노이주에서 거래된 주택 26만채의 각 판매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이 같은 케이스의 경우 배상금이 자동으로 3배 늘어나기 때문에 총 배상금 규모는 53억 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 이후 집단소송이 미주리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향후 부동산 거래의 패러다임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업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구매자가 에이전트에게 직접 수수료를 주는 대신 판매자에게 주택 대금을 건네주면 판매자가 자신의 에이전트와 구매자 에이전트에 수수료를 나누어 각각 지불한다.

이 같은 우회 지불 방식은 구매자가

직접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고 에이전트도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거래 성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만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수수료를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지불하게 된다. 소비자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될 경우 투명성이 높아지고 판매자, 구매자가 모두 에이전트와 더 많은 협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관례적으로 주택 거래 가격의 5~6%에 해당하는 총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과 달리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는 에이전트를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총 수수료가 3~4%로 낮아질 경우 소비자들은 연간 200~3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에이전트간 수수료 인하 경쟁

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일부는 변호사처럼 시간 또는 항목당 수수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되면 경험 많고 인맥이 두터워 정기적으로 고액 매물을 확보하는 에이전트와 달리 신입이나 검증되지 않은 에이전트는 타격이 심해 수입 급감 또는 도태될 수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년 경력의 거주 에이전트인 마이크 로젠탈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각각의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따로 지불해야한다면 양측 모두 적잖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매자의 경우 바로 다른 주택을 찾는 구매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이전트 없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구매자가 늘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낙희 기자

하인즈 피클맛 케첩 출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

하인즈가 피클 맛 케첩을 출시한다.



6일 CNN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출시 예정인 하인즈의 '피클 케첩(사진)'은 짭짤한 피클 맛과 토마토케첩을 적절하게 혼합한 제품이다.

하인즈의 혁신 담당자 케이트 피터슨은 "설문조사 결과 약 73%가 '피클을 즐긴다'고 답했다. 피클 케첩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특이한 소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출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이한 맛의 신제품이 업체의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는 하지 않지만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정하은 기자

기업들이젠 퇴사 적어 골머리

'회사 남겠다' 비율 12%p 늘어

코로나19 시기 떠나는 직원들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기업들이 이제는 반대로 퇴사자가 적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3%에 달했던 총 퇴사율(총고용에서 퇴

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월 석달 연속 2.3%를 유지했다.

인력 서비스 업체 아데코는 지난달 공개한 조사 보고서를 통해 현 직장에 머물고 싶어 하는 근로자가 작년 61%에서 올해 73%로 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기간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더 나은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찾아 떠나 '대사직(Great Resignation)' 시대

로 불렸는데 지금은 다른 세상이 펼쳐진 것이다.

기업들의 일부 임원이 노동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바뀌는지 놀랐다고 털어놓을 정도다. 아데코의 테니스 매추얼 최고경영자(CEO)는 "확실히 인력의 자연 감소가 줄고 있다"면서 "거시경제가 썩 좋지 않아서 근로자들은 밖이 춥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몇 달간의 해고가 부분적으로 낮은 퇴사율 때문이라고 지난해 중순 설명했다. 웰스파고도 퇴사자가 적어

앞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뱅크 오브 아메리카(BofA)와 제약회사 페링제약도 올해 들어 퇴사하는 직원이 줄었다고 밝혔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실업률은 9월 3.8%에서 지난달 3.9%로 소폭 상승해 여전히 역사적 저점 근처를 맴돌고 있지만,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가율은 같은 기간 절반으로 줄어 15만 명 증가에 머물렀다. 예상치인 17만 명도 밑돌았다.

일부 큰 기업은 매출 감소 속에 연말 이 다가오면서 프로젝트를 연기해야 할

지 아니면 인력을 추가로 감축해야 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직원을 줄이려면 해고하면 되지만 사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다.

또 이직률이 낮은 시기 그만두는 직원이 너무 적으면 회사들이 종종 성과 평가에서 더 어려워져 퇴사를 부추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들은 이직이 적을 때 바이아웃(계약만기 전에 일정한 보상을 하고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는 일종의 명예퇴직)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내년부터 세금서류 온라인으로 접수

2025년부터 완전 전산화

국세청(IRS)의 종이 없는 세금보고 시대가 수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지난 7일 A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닛 옐런(사진)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IRS의 헤드쿼터에서 한 연설을 통해 새로운 IRS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 없애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납세자들이 당장 내년부터 세금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디지털 서류 제출 가능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예정보다 수개월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옐런 장관은 "세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처리 시간도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IRS는 세금 보고 시즌마다 접수 되는 종이 서류 및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세금보고 처리가 적체되고 감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연간 최소 2000만 건의 세금신고, 세금보고와 무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옐런 장관이 발표한 새로운 계획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납세자는 2024년부터 종이 세금보고서를 제외한 모든 종이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완전 디지털화는 2025년이다.

특히 당국은 2025년부터 IRS가 보관 중인 10억 건 이상의 세금 서류도 디지털화해서 서류 관리 비용인 4000만 달러를 매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IRS의 무료 온라인 세금

보고 프로그램인 '프리파일' 파일럿 프로그램도 일부 주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IRS의 디지털화는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받게 된 8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후 공화당 측에서는 배정된 예산안이 과다하다며 계속해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우훈식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SC 헤민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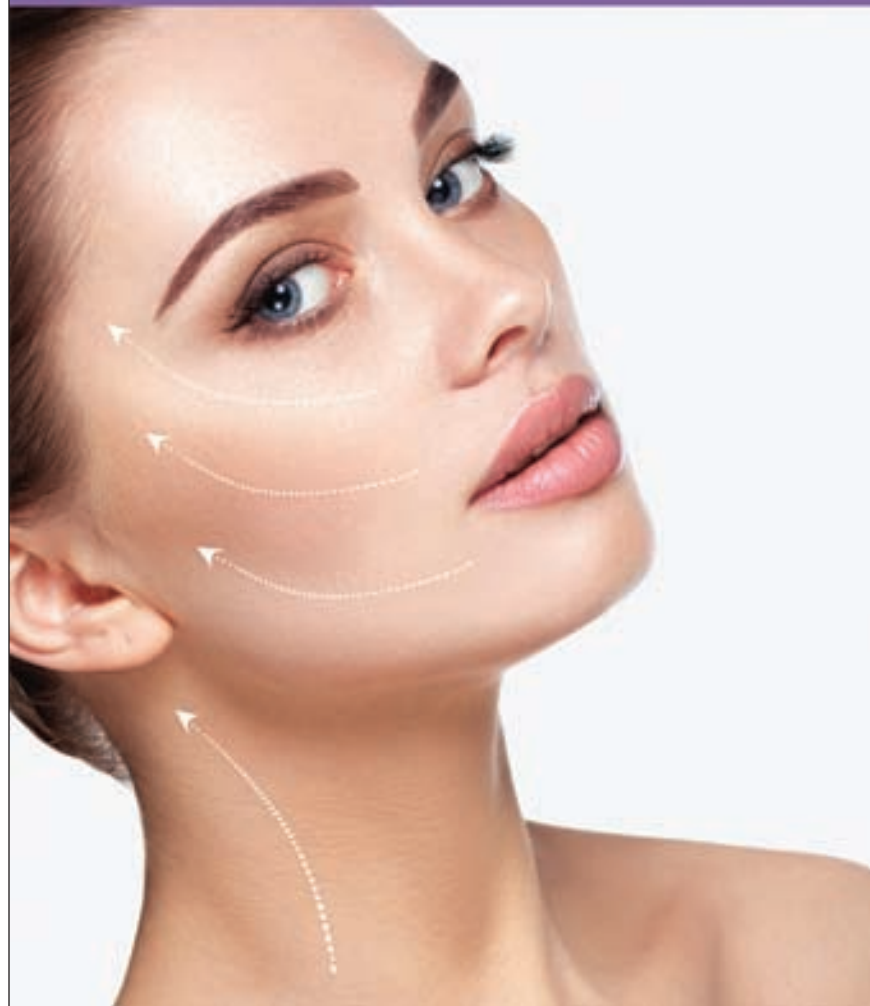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스킨케어와 보톡스를 한번에!



- Board Certified NP가 직접 시술
-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
- 미백과 보습! 안쪽부터 차오르는 촉촉함
- Licensed Esthetician, Cosmetologist, and Massage Therapist.
- 가름해 보이고 싶은 분, 주름에 신경쓰이는 분



Xeomin Botox
안전하고 빠른 제오민

*제오민 보톡스는 FDA의 승인을 받은 목일산 프리마덤 보톡스로서, 불필요한 복용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내성의 우려가 거의 없어, 반복 시술에 효과적입니다.

美人 MI-IN (301) 279-6960
BEAUTY 2000A VEI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바이든, CNN 가상대결서 트럼프에 '45% : 49%' 열세

미국 대선을 약 1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CNN이 여론조사 기관 SSRS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전국의 성인 1천5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3.3%p)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대선 경쟁자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45% 대 49%로, 오차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밀렸다.

등록 유권자들을 상대로 두 후보의 양자 대결로 대선이 지금 치러질 경우 누구를 찍겠느냐는 질문을 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CNN은 소개했다.

조사에 응답한 유권자의 51%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고, 4%만이 지금은 지지하지 않지만 앞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등록 유권자의 48%가 지지 가능성을 담았고, 2%는 마음을 바꿔 지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견인했던 집단에서 바이든 지지세가 크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전했다.

바이든-트럼프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21% 포인트차 우세를 안겼던 35세 미만 유권자 그룹에서 두 전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48% 대 47%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응답이 더 많았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7% 포인트 차이의 절대적 지지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몰아줬던 흑인 유권자 그룹에서는 후보별 지지율이 바이든 73%, 트럼프 23%



로 나타났다. 여전히 바이든 지지가 압도적이지만 격차는 25%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대선 출구조사에서 33% 포인트 차로 바이든 대통령을 밀었던 라틴계 유권자의 이번 조사 지지 후보는 바이든 50%, 트럼프 46%로 불과 4% 포인트 차밖에 나지 않았다.

또 전체 응답자의 25%만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체력과 영민함을 갖췄다고 답했다. 트

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53%가 같은 답변을 해 대조를 이뤘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51%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통령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체력과 영민함이 있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의 90%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답을 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1%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재선에 도전하는 대선 1년 전 업무 수행 지지율면에서 현대 미국 대통령 중 지미 카터 전 대통령(32%·1977~1981년 재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CNN은 소개했다. 2019년 10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41%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의 업무 수행

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14%에 그친 반면, '강하게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42%에 이르렀다.

또 응답자 72%는 '미국이 지금 나쁜 게 가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집권 초기인 2021년 3월 조사에서의 60%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결과였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중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대사에 43% 대 49%로 역시 열세를 보였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도 46% 대 48%로 역시 밀렸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와 코넬 웨스트를 포함한 4자 구도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5% 대 41%로 열세였다. 케네디 주니어는 16%, 웨스트는 4%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병원들, 간호사 인력난에 임시직 간호사 의존 심화

미국 병원에서 간호사 알선 플랫폼 기반으로 교대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긱 워크'(gig work·초단기 임시직 노동)로 전환하는 간호사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간호사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병원 측,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근무 유연성에 끌린 간호사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이 때문에 환자 치료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고 AFP통신이 8일 전했다.

간호사 제시카 마르티네스(38)는 미 뉴저지주 패러머스에 있는 '버진 뉴브리지 메디칼센터' 병원에서 초단기 임시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일주일에 7일,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해왔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꼴로 적게 일한다"며 정규직 간호사보다 지금의 임시직 간호사가 임금이 최소한 30%는 높다고 AFP에 말했다.

이런 흐름의 동력은 우선 병원들이 간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임시직 간호사 채용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나온 간호사 단체의 보고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와중인 2020년 4월 21일 최대 간호사 노조 전미간호사연합(NNU)이 백악관 앞에서 코로나19로 숨진 동료들의 사진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에 따르면 팬데믹의 여파로 미국 내 간호사 10만명가량이 일을 그만뒀다. 또 61만명 이상이 스트레스와 번아웃(육체적·정신적 탈진)이나 은퇴로 인해 2027년까지 일을 그만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간호사 수가 작년 기준 약 520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이는 상당한 노동력 감소에 해당한다.

마르티네스가 일하는 병원의 데버러

비스코니 대표는 "많은 사람이 조기에 은퇴하거나 직업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면서 의료 분야에 인력 부족 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병원은 '케어랩'(CareRev)이라는 간호사 알선 플랫폼과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이곳을 통해 약 150명을 충원했다.

비스코니 대표는 "몇 시간 안에 곧바로 교대근무를 할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며 이런 방식의 장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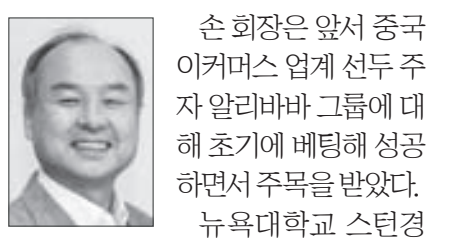
손정의 회장, 위워크 파산에 115억 달러 손실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의 파산신청은 이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사친) 회장에게 115억 달러의 손실을 안겨주었으며 그의 명성은 그보다 더 심한 손상을 입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손정의 회장은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뱅크 그룹과 비전 펀드의 자금 수십억 달러를 끌어다 위워크 창업자 아담 노이만에게 전달했다. 이 투자에 힘입어 위워크는 2019년 초 기업가치가 470억 달러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위워크의 기업 공개 서류에서 이해 상충 문제가 드러났으며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위워크의 주가 급락으로 인해 소프트뱅크는 약 115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 손실을 보았으며, 22억 달러의 부채도 떠안게 됐다.

작년에 비전 펀드가 320억 달러의 기록적인 손실을 본 데다 위워크 주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전설적인 벤처캐피탈 투자자로서의 손 회장의 입지는 타격을 받았다.



손 회장은 앞서 중국 이커머스 업체 선두 주자 알리바바 그룹에 대해 초기에 베풀어 성공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뉴욕대학교 스티븐경 영대학원의 아스와스 다모다란 교수는 "실수한 것은 회복할 수 있지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라며 "그의 행동은 '나는 오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모다란 교수는 손 회장이 알리바바 그룹 투자처럼 닷컴 붐과 때 살아남았던 경험이 그의 판단력을 손상시켰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워크 사태 이전에는 손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매우 신중하고 영리하며 비전 있는 조직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성공은 때때로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파고든다. 성공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했을 수 있다. 결국 거기에 몰락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온라인 전력 투구' 뉴욕타임스, 구독자 수 1천만명 돌파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구독자 수 1천만명 고지에 올라섰다.

NYT는 8일 공시를 통해 3분기 온라인 구독자 수가 21만 명 늘어나면서 전체 구독자 수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NYT의 종이 신문 구독자 수는 꾸준

히 줄고 있다. 지난해에는 7만명이 감소했고, 현재 67만 명이다.

그러나 NYT는 온라인 구독자 수 증가에 힘입어 전체 구독자 수 1천만 명을 돌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NYT 온라인 구독자는 941만 명에 달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NYT는 온라인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상품 개발로 새로운 독자층을 유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NYT는 온라인 구독자에게 신문 기사 외에도 요리와 게임, 상품 리뷰, 스포츠 등 별도로 제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구독자에게 단순히 종이 신문 기사를 온라인에서 보는 것 이상의 정보를 주겠다는 취지다.

NYT는 온라인 스포츠 뉴스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난해 전문매체 '디에슬레틱'을 5억5천만 달러에 매수하기도 했다.

약 400명의 기자가 소속된 이 스포츠 전문 매체는 실시간으로 주요 경기 결

과 등 스포츠 뉴스를 생산한다.

이 같은 온라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NYT의 3분기 매출은 5억9천83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상승했다. 특히 영업 이익은 8천9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1%나 늘었다.

최근 광고업체가 불황이지만, 디지털 광고로 올린 매출도 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메디케어!

2024 메디케어 변경 및 등록안내

2023년 10월 15일 ~ 12월 7일

보험료 감면 상담 / 병원비 탕감 상담

메디케어 무료 신청

- 1958년, 1959년생이신 분들
-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 B, G, K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어 (QMB, CCC + DSNP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10 organizations which offer 68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e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등록

“건강보험은 저렴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충분한 커버가 되어야 합니다!”

종전에 오바마보험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 수입이 많다고 보험료가 비싸다.
- 건강보험이 있어도 받아주는 안인 의사가 없다.
- 건강보험이 있어도 의료비는 다 내 부담이다.

NEW

- ▶고소득자 영업자에게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채로 플랜이 확대되었습니다.
- ▶안인 의사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랜이 늘었습니다.
-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상담하십시오.

정승욱/김영선 보험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Sponsored by

스마트보험 SMART INSURANCE

Licensed Agent

정승욱 · 김영선 상담

703-844-0355

4000 Legato Rd, Suite 1100
Fairfax, VA 22033

THE TOWNES AT LITTLE RIVER CROSSING



NOW SELLING IN ANNANDALE, VA

OVER 2,700SQFT LUXURY TOWNHOMES FROM THE \$800s

Enjoy suburban charm with city convenience with easy access to shopping, dining, entertainment and major commuter roads. Within this charming community, enjoy pocket parks throughout as well as a Fairfax County Park across the street for afternoon strolls.

Don't Miss Out On Our Year-End Incentives!

christophercompanies.com

7401 Rocky Creek Terrace, Annandale, VA



Liz Walker & Lauren Trizna

Community Sales Managers

571.512.2195 | 703.565.6327

Liz@christophercompanies.com | Ltrizna@christophercompanies.com



*Community incentives, plans, pricing and amenity details and dimension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change at any time. Illustrations are artist concepts and may vary from the actual product being built, as well as from community to community. Builder specifications are subject to revision or substitution of equivalent materials without notice. We reserve the right to substitute equipment, material, appliances, and brand names with items of equal or higher, in our sole opinion, value. Contact the community manager for the latest information.

“신학 교육과 현실의 간극 커... 실천적 교육 필요”

미드웨스턴 김정훈 교수 인터뷰

신학교가 흔들린다. 이는 곧 기독교의 위기로 이어진다. 신학교마다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기독교 대학들은 폐교 또는 합병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윌리엄스칼리지, 네브래스카 기독교대학 등이 폐교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남가주 지역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역시 이미 지난 2018년 재정난 해소를 위해 오리건주 윌라메트대학과 합병하기로 발표했다. 게다가 팬데믹 시대 이후 온라인 시스템으로 교육 환경이 재편되면서 신학 교육이 급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이하 MBTS)은 한국부를 중심으로 교육의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MBTS의 김정훈 교육학 교수(아시아부 부학장)가 생각하는 신학 교육의 문제, 방향 등의 의견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신학교 지원자가 줄고 있다.

“올해 신학대학원별 지원자 통계를 보면 대부분 미달이다. 신학교육의 내적 문제뿐 아니라 출산율 감소, 급격한 사회 변화 등 외적 요인도 있다. 하지만, 신학 교육 현장의 철저한 반성과 함께 변화의 시작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임은 인정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학교가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교과 과정의 전문성에 대한 반성과 변화가 필요하다. 1990년대는 교육, 2000년대는 복지, 2010년대에는 상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시대의 필요들이 신학 교육 과정에도 조금씩 반영됐다. 하지만, 개론 정도만 다를 뿐 전문성을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기독교 교육이라 해보자. 신학교육을 받는 동안 관련 과목은 많아야 두세 과목이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현상에 대한 질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부로는 사회의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교회의 침체를 극복하고자 세미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심지어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목회자가 늘고 있다. 이는 신학교육 과정이 졸업 후 사역을 감당할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학 교육 자체는 어떤가.

“대부분 조직신학, 성경 신학, 역사

“신학교마다 지원자 미달 사태 철저한 반성, 변혁 늦출 수 없어

시대의 변화 충분히 소화 못 해 학습, 실습 등의 과정 집중해야

“신학 등으로 교과 시간이 배정돼있다. 그러나 언어 과목의 비중을 제외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단 신학의 정립을 위해 필수 과목이라는 당위성은 있었지만 실천, 응용 신학의 분야는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신학은 특수성이 있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한 교수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적이 있다. 학문성을 배제한다기보다는 신의 존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학문에서 사용하는 이성, 합리성 외에 신적 권위에 복종하는 학습 태도가 요구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때문에 신학교의 교과 과정은 학문적 전문성과 함께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영성 훈련까지 포함해야 마땅하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분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시대와 교과 과정, 학교와 교회, 이론과 실천, 교회와 세상 등 다양한 범주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부학장인 김정훈 교수는 “신학은 변화의 코드를 담아내는 유언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를 포함한다. 그중에서도 이론과 실천의 현장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통전적 교과 과정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많은 경우 교육과 현실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 배우는 자 모두가 이론과 실재가 요원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 지향적인 현장의 필요를 고려해서 이를 위한 학습, 실습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예를 들어 교과 과정을 3년보다 길게 가져가야 한다. 신학교와 교회의 공조를 통해 학기 또는 방학 기간에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해볼 수도 있다.

교단이 나서 선교지를 포함해 교회들과 신학교의 연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해 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미드웨스턴의 경우 학부와 신대원을 통합한 5년제 프로그램도 시행중이다. 신학, 전공, 실습 등의 다양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시대의 흐름이 빠른데.

“신학은 변화가는 시대 가운데 변하지 않을 사람의 가치를 신학교육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단, 변화의 코드를 담아내는 유언함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팬데믹을 거치면서 온라인 교육 환경으로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

졌다. 온라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심지어 교회 개척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형태가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어떤 교육 환경이 형성될까.

“사회가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 중심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활용해야 한다. 첨단 교육 환경은 학업 효과를 높여줄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가치를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람에 대한 연구와 사람 자체의 가치는 그 어떤 연구나 가치로 대체돼선 안 된다. 사람들이 연합하고 위로할 수 있는 목회자와 같은 직업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이다.”

-신학을 배우는 목적은.

“신학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 죄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방법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다. 날카로운 지성의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실천적 영성을 겸비하는 것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현장을 복음의 필터로 거친 전문성으로 포용하고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가 풀어나갈 통전적 신학교육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열 기자

등불 아래서

먼지 한 톨도 무겁지만

예전에 아침 등굣길은 버스에 올라타려고 뛰어가는 순간부터 숨 막히는 전쟁이었다. 너는 도저히 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은 버스 안으로 빨리 올라가고 문을 닫지도 못한 안내양들은 마지막 잎새처럼 난간에 매달려 숨 고르기를 했다. 운전기사의 전설적인 S자 운전을 기다리는 것이다. 한쪽으로 사람들을 기막히게 몰아 버리는 순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

두를 밀어 넣으며 문을 닫는 기술은 아침부터 비명과 함께 경탄을 자아냈다. 흰 장갑을 끼고 숨을 몰아쉬던 누이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 겨우 서너 살 더 많았던 정말 삶을 치열하게 살던 전사들이었다. 피곤함에 지쳐 한 정거장에서 쪽잠을 청하다가, 조금 늦게 문을 열었다고 막무가내 승객이 퍼붓던 한 사발 욕을 다 먹기도 했다. 그렇게 깨끗해 보이던 그

녀는 한 승객이 “그러니 왜 잠을 자. 서울까지 뭉쳐 와서는”이라는 말에 돌아보지도 못하고 조용히 서럽게 울었다. 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이 말은 원래 더해봤자 표도 안나는 잔소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 가벼운 서리가 무거워졌다. 앞선 데 뒀던다는 뜻이 되었으니 말이다. 정말 힘들 때는 먼지 한 톨도 무거운 법이다. 우리도 모두 인생의 무게를 지고 걷는다. 한마디 말이 먼지 같지만, 그 먼지로 무너지기도 한다. 그 말이 연자땀들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처가 없

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문가에서 서서 서럽게 울던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금세 눈을 흘치고는 ‘오라이’하며 씩씩하게 버스 옆구리를 치던 모습도 잊지 않는다. 얼굴을 고치려고 꺼냈던 조그만 손거울. 그리고 그 뒤에 붙어있던 가족 사진. 그녀는 혼자 아니었다. 작은 손거울 뒤에 붙은 가족사진이 힘차게 ‘오라이’를 외치게 했다. 우리 인생을 홀로 두지 않고 그 어깨에 우리를 짊어지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외칠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짊어진 그 분이는 위에 다시 내린 서리를 어찌 짚

어지지 못하겠는가? 나의 상처를 자기 심장에 새긴 분이 어찌 먼지 한 톨을 함께 새기지 못하겠는가. 내 인생의 거울. 그 거울 속에는 내 얼굴만 있지 않다. 예수님의 얼굴이 있다. 먼지 한 톨도 무겁고, 상처 하나도 아프지만 주님은 넉넉하게 우리 인생을 모두 짊어지신다. 주님이 나의 발자국이 되어 주시는 인생이라면 우리도 힘차게 ‘오라이(all right)’라고 외치자. “주님, 모두 괜찮고 모두 좋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함께 가겠습니다.”

한성운 목사-나선남포교회

① 위싱턴 중양일보

직원 모집

위싱턴 중양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직 0명**
일반 사무직 0명
- 기본 MS office 프로그램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infokddc@gmail.com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학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십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osperlaw.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LOTTE PLAZA market

물가안정
33탄

롯데플라자 마켓 물가잡기 프로젝트
인플레이션을 이기자

BEAT INFLATION WITH LOTTE PLAZA MARKET!

NOV. 9th - NOV. 16th, 2023

지금처럼 군침도는 세일

살살 녹는 우삼겹 차돌박이 **VS** 부드러운 생삼겹살

두가지 모두 먹어야 제맛!

FROZEN ANGUS BEEF SLICED SHORT PLATE / PORK BELLY BBQ FAMILY PACK



LIMIT 3 PACK
냉동 앵거스 우삼겹 차돌박이
FROZEN ANGUS BEEF SLICED SHORT PLATE
~~\$14⁹⁹~~ **\$8⁹⁹** LB

LIMIT 3 PACK
바베큐 생삼겹살(패밀리팩)
PORK BELLY BBQ (FAMILY PACK)
~~\$8⁹⁹~~ **\$4⁹⁹** LB



번진 중 오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품목은 사정에 따라 조기종결 또는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 may contain errors.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items are subject to change.

- Sterling, VA 30 Ridgemon Hill Dr. Sterling, VA 20165
- Centreville, VA 5900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 Chantilly, VA 13355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 Arundale, VA 5204 Port Royal Rd. Springfield, VA 22151
- Ashburn, VA 43930 Farmwell Hunt Plaza Ashburn, VA 20147
- Herndon, VA 490 Eldon Street Herndon, VA 20170
- Ellicott City, MD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 Catonville, MD 6800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 Rockville, MD 1902 Veers Mill Rd. Rockville, MD 20851
- Gaithersburg, MD 221 Muddy Branch Rd. Gaithersburg, MD 20878
- Silver Spring, MD 15625-A Georgia Ave. Silver Spring, MD 20906

수도권 집중 해소부터 풀어야 메가시티도 성공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는 국민의힘의 구상이 의외의 북풍을 만났다. 수도권 편중 심화 우려와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며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비판과 반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김포구' 입법을 위한 당 특별위원회는 '메가시티 서울' 간판 대신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란 어정쩡한 이름을 달고 출범했다. "서울·부산·광주 3대 메가시티를 키워 국가 균형 발전을 하자는 것"(조정태 특위 위원장)이지만, 역풍을 의식한 성격이 짙다.

'김포 편입'은 공론화 없이 공약화해 단번에 폭발성 강한 정치 이슈가 돼버렸다. 김포만의 문제가 아닌게 됐다. 판이 커진 것이다. 깊이 있는 논의는 실종됐다. 총선 득실 계산과 찬반 대결만 남았다. 이대로 흘러가게 놔둬선 위험하다.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한다는 각오로 전략적 토론을 시작할 때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이라는 트라이앵글의 늪에 빠져 있다. 수렁에서 탈출하지 못하면, 생존조차 위협받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미래 전략 수립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메가시티 이슈가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서울 공화국만 남게 될 것"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비(非)서울, 비수도권의 반발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김포) 주민 편의를 위해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란 발언이 여당 대표에 의해, 그것도 전문가 토론이나 공청회 한 번 없이 불췌 튀어나왔다. 김기현 대표는 지방(울산) 출신이다. 울산시장을 지냈고 울산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4선 의원이다. 균형 발전에 대한 현실 인식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 셋째)가 지난달 30일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인 주민 편의를 위해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란 발언이 나왔다. [연합뉴스]

클 수밖에 없을 텐데 '닥치고 메가 서울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이러니다.

당장 같은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 포퓰리즘이며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유정복 인천시장)라거나 "서울을 더 비대화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홍준표 대구시장)이란 비판이 나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청사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5만3000명이다. 서울·인천·경기를 합친 국토 면적은 12%에 불과한데 전체 인구의 절반(50.5%)이 몰려있다. 문제는 전체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2021년 이후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점이다.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엔 국민의 53%가 수도권에 몰릴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다. 일자리·돈·기회를 빨아들이는 '수도권 블랙홀'은 지방소멸을 재촉한다. "결국 서울 공화국만 남게 될 것"(무소속 기초단체장)이란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메가시티, 수도권 표심 흔들 수도"

'김포 편입' 불씨는 주변 도시로 퍼지고 있다. "서울과 출퇴근이 공유되는 곳의 서울시 편입"이란 발언이 불을 댕겼다. 광명·과천·부천·고양·구리·하남·성남 등 인근 '베드타운'이 들쭉이고 있다. 한 중진 정치인은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값 상승 등으로 직장은 서울에 두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났는데, 메가 서울 공약이 수도권 표심을 흔들 매력적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지역의 야당 의원들이 침묵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총선을 앞둔 여당이 경제 문제 같은 불리한 이슈를 덮고 정치적으로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셈이다. 10년 넘게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정치 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다. 현재도 국회의원 의석의 85%(121석 중 103석)를 민주당이 장악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는 여당 당세를 반전시키려는 노림수"라거나 "강서구청장 보선 패배 이후 불안정해진 김 대표가 당내 입지를 의식한 것"이라고 비난이 야당에서 나오는 건 이런 민감한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향후 전망을 장밋빛 일색으로 보긴 어렵다. 여당은 '메가시티 구상'이라고 둘러대지만 주변 도시를 흡수해 몸집과 크기를 불리는 것과 인근 도시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핵심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개념인 메가시티는 180도 다른 얘기다. 한 자치단체장은 "메가시티란 말을 가장 좋아 하는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라며 "서울 주변 도시들의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을 공산이 크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가적 존망이 걸린 문제를 심도원려(深謀遠慮) 없이 밀어붙이는 아마추어리즘과 무책임이 자칫 더 큰 재앙의 불씨를 잉태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지난 정권의 국민 갈라치기와 포퓰리즘을 앞장서 비판했던 이들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데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다.

통합→해체→부활, 런던광역시

행정구역이나 국토 개편은 사실 그 자체가 정치 행위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슬한 사례가 있다.

고대 도시국가 아테네의 민주정을 연 클레이스테네스의 정치개혁은 행정개혁으로 시작했다. 아테네 전역을 행정구로 분할한 행정개혁으로 귀족들의 소유지가 쪼개져 결과적으로 귀족계급의 권력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

영국 런던광역시(Great London Council, GLC)의 사례도 시사하는 바 크다. 지방자치 권위자인 김병준 전 국민대 교수의 저서 『지방자치론』엔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한 런던광역시의 사례가 자세히 나와 있다. 내용을 소개한다.

런던광역시는 1963년 구(舊) 런던 지역에 있는 12개 자치구와 외곽의 20개 보우러(borough), 특별자치체 성격을 지닌 런던시(City of London)를 합쳐서 발족했다.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구 런던 지역을 보수 중산층이 많은 외곽 지역과 통합해 사회주의자들의 도시 정부 장악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통합 런던광역시 내에 점차 사회주의 세력이 늘어나더니 1981년 선거에선 노동당이 92개 의석 중 48석을 차지하며 의회를 장악했다. 신좌파 리빙스턴의 지도 아래 지하철·버스 운임 인하, 부유세 징수 등 사회주의 정책을 강행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처 총리는 행정의 효율화란 이름 아래 1986년 런던광역시를 해체한다. 엄청난 정치적 소요와 갈등이 일어났으나 1986년 런던광역시는 폐지되고, 런던은 중앙 정부와 기초지방정부(City of London)가 바로 연결되는 단층제가 됐다. 하지만 1997년 집권한 노동당은 다시 런던광역시 부활을 추진, 2000년 5월 런던광역정부(Greater London Authority, GLA)를 제출했다. 행정구역 개편이 원하는 정치 지형의 변화는커녕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실증적 사례다.

지방소멸 간과하면 나라 패망

수도권 집중은 청년의 이동이 견인한다. 지방의 질 낮은 일자리, 저임금, 문화 소외, 기회 박탈 때문이다. 수도권 편중이 OECD 26개국 중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란 건 그만큼 지방의 생존기반이 취약하다는 걸 입증한다. 청년의 수도권 이동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 감소를 가속하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의 축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에 이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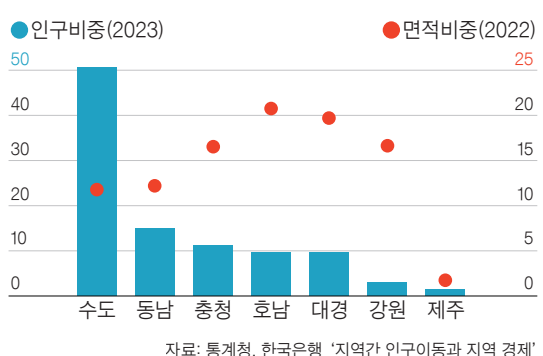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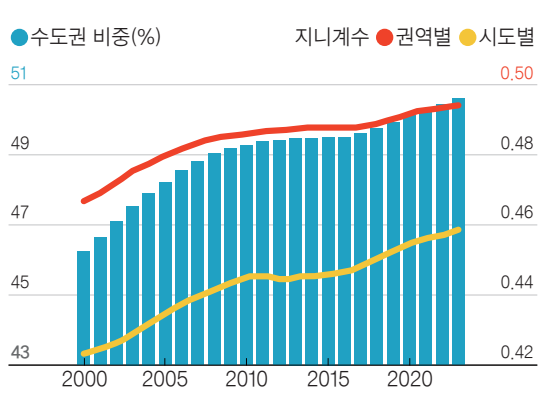
일본 정부의 지방창생(地方創生), 즉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모체가 된 마쓰다 히로야(増田寛也) 일본 우정 홀딩스 사장의 저서 『지방소멸』은 정독해야 할 '교과서'다. 이와테 현 지사와 총무대신을 지낸 마쓰다 사장은 일본 청년들의 도쿄권(도쿄도,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으로의 과도한 집중으로 지방 도시들이 사라져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나라의 패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의 인구 감소가 지속할 경우 2040년엔 90개 지역이 소멸할 것이란 주장이 경종을 울리면서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도쿄권을 제외한 전국 82개 도시를 중추 중핵 도시로 지정하고, 도쿄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가구에 지원금을 줬다. 도쿄도나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에 살면서 도쿄로 출퇴근하는 경우도 지원금 혜택을 받게 했다.

김포식 '당근' 정책과는 정반대다. 손쉬운 서울 편입 방식이 아니라, 각 지방을 특성화 생활권 거점 도시로 재편하고 김포에서 각 지방으로의 이동을 유인하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여는 데 부합하는지 자명하지 않은가.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수도권 인구 집중 현황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 경제'

"THE FIRST OR NOTHING"

Tyson's Office: 8000 Towers Crescent Drive, FL 13, Tysons, VA 22182
 Phone: 703-278-2773
 Kakao Channel: 제이앤비에세이컨설팅
 Email: pct@jbessay.com
 Website: www.jbessay.com

Essays for Kids (Grades 5-8)

Boarding Admissions (Grade 8)

Essay Contests (Grades 8-11)

Journals (Grades 9-11)

HYPS Portfolios (Grades 10-11)

College Admissions (Grade 12)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주책 매매(주거용, 투자용)
 상업용 부동산 매매
 법원 경매(Auction)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health
markets[®]
건강보험마켓



**귀하의 삶에 맞는 합리적인 비용의
메디케어(Medicare)가 필요하신가요?**

올바른 메디케어 혜택을 선택하는 것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예산에 맞는 플랜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오늘 전화하십시오!
한국어를 구사하는 자격증 소지 보험 에이전트:
1-800-601-868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현지 시간)

HealthMarkets Insurance Agency, Inc.는 모든 50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보험 기관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든 에이전트가 모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및
제품은 주마다 다릅니다. 판매 에이전트는 가입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023 HealthMarkets 48789aKOR-HM-0923

윤 대통령, 15일 방미 APEC 참석... 시진핑과 회담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다. 18일 귀국하는 윤 대통령은 19일 하루 국내에 머무른 뒤 20일부터 3박4일간 찰스 3세 국왕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해 리시 수내 총리와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곧이어 23일부터 2박4일간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나선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빈 방한한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1	11월 15일	한국 출국
2	11월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3	11월 18일	한국 귀국
4	11월 20-23일	한-영 수교 140주년 영국 국왕 초청 국빈 방문
5	11월 23-24일	엑스포 결정(28일) 앞두고 프랑스 방문해 유치 활동
6	12월 12-13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시작으로 국왕 주최 환영 오찬, 6·25 전쟁 참전 기념비 헌화, 웨스트민스터 사원 방문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유민주주의의 산실로 평가받는 영국 의회에서 한-영 관계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약속하는 내용의 연설도 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영여로 연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엔 수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선 디지털·인공지능(AI)·사이버안보·원자력발전·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3일 프랑스로 이동해선 파리 주재 각국 국제박람회 기구(BIE) 대표를 상대로 오·만찬 행사 등을 소화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선다. 이와는 별도로 윤 대통령은 발람 알렉산드르 국왕 초청으로 12월 12-13일 양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권호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8일 윤 대통령의 올해 남은 해외 순방 일정을 브리핑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APEC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CEO 서밋 기조연설,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들과의 비공식 대화 및 업무 오찬, 정상 만찬, 정상 리트리트(retreat, 형식·주제 무관하게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 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가장 큰 관심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여부다. 김 차장은 “(몇

몇 국가와 양자회담을) 논의 중이라 국가 수와 나라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지만,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이다. 성사되면 양국 정상이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25분간 회담한 데 이어 두 번째가 된다.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와 시

주석 방한 문제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 스탠퍼드대에서 함께 강연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일과 한·미·일 협력을 설명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언급할 것으

로 보인다.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곧바로 이어질 영국 방문은 지난 5월 대관식을 치른 찰스 3세 국왕이 초청한 첫 국빈이다. 찰스 3세는 지난 7일(현지시간), 즉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에선 21일 공식 환영식을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들이 서서히 내년 4월 총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연내 시작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추 부총리는 지역구인 대구 달서에 다시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경기도 성남 분당에 출마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총선 때 열 지역구(분당갑)에서 당선됐다가 경기지사 도전으로 사퇴한 김은혜 후보수석도 분당을 출마를 고려하고 있어 ‘내부 교통정

추경호·박민식은 대구·분당행 채비... 원희룡·한동훈 선택은

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 경험을 발판으로 총선을 통해 입지를 다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원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결정을 안 했다”며 “단순히 내가 나가서 승리한다, 만다보다 여권 전체의 큰 혁신 흐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스타급 장관인 만큼 이재명(계양을)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심상정(경기 고양갑) 정의당 의원과 맞붙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대 관심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거취다.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한 장관 자신은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당의 출마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장관은 이미 총선이라는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몸을 푸는 복서의 모습에 가깝다”며 “최근 주변의 출마 권유가 커짐에 따라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심 중인 것으

로 안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1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여권에 따르면 박민식·원희룡 장관과 전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 등이 서울 모처에 모여 국정 현안과 총선 전망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 자리에는 한 장관도 있었다고 한다. 다만 다른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은 내가 쓸 데가 있으니 자꾸 바람 날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일훈 기자

블링컨 미국무장관 한국 도착...9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수장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8일 한국에 도착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오후 늦게 전용기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블링컨 장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는 9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의 만남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저녁 오산공군 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려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블링컨 장관은 방한 기간 캠프데이비드 회담 이후 한미일 3국의 이행을 점검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미중 정상회의를 하기 전

한국과 의견 조율 등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북러 군사협력 우려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관한 한미일 간의 조율도 논의할 전망이다. 그는 중동 마지막 순방지인 튀르키예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방문에 대해 “우리가 가져다주 위기에 집중하는 상황에서도 국익 증진을 위해 인도-태평양양과 다른 지역에 관여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 바 있다. 방한 기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북아 안보질서를 모두 뒤흔들 수 있는 요인인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논의가 비중 있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배재성 기자

주호영 “절대 서울 안 간다... 대구서 시작했으면 대구에서 끝”

5선인 주호영(사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갑)은 8일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다면 대구에서 마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열고 “걱정하지 마라. 서울로 가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40년째 미국 상원의원을 했는데 지역구를 옮겼나.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지역구를 옮겼나. 원래 지역구는 옮기는 법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만 이상한 발상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 옮겨가는 한두 사람은 그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니 서울 간다”며 핑계 대고 가지 그 지역에서 지지를 받고 잘 되는 사람이 뭐 하려고 옮기냐”며 “(나는) 절대(서울) 갈 일 없다. 3선 이상 지역구 옮기라고 했다가 하루 이틀 뒤에 취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당 혁신을 위해 지도부·영남권 중진·천운계(윤석열 대통령 측근)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합치 출마 권고했다. 정세내 기자

맛있는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우메켄 연말 더블 혜택 대전치

▶ 12월 31일까지



“와~ 우메켄이네!”

올 연말 사랑하는 분들께 **우메켄**을 선물하세요

10%할인 + 무료 선물

\$98 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씨(C)밸런스
\$39

OR



FREE GIFT

캐나다산
오메가3 + CoQ10
\$39

\$165 이상
제품 구입시
할인+선물



FREE GIFT

발효
미네랄 L칼슘
\$69

OR



FREE GIFT

건강 다시
타쿠미 2박스
\$56

할인혜택과 함께 **무료 선물**도 받으세요

SALE + 선물 증정

베타글루칸 세트



~~\$539~~ ▶ **\$485**

리포포 세트



~~\$439~~ ▶ **\$395**

효소환 세트



~~\$439~~ ▶ **\$395**

L&B 화장품 세트



에센스(\$115)

~~\$439~~ ▶ **\$395**

L칼슘(\$69)
무료증정



FREE GIFT

OR

타쿠미 2박스(\$56)
무료증정



FREE GIFT

888-941-3311 umeken.com

* These statements have not been evaluated by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y disease.

혁신기술 창업이 국가안보 방파제

2023 혁신창업국가 국제심포지엄

김진표 의장 “과학+국방 인재 양성”
이종호 장관 “딥사이언스 창업 강화”
홍석현 회장 “탄탄한 생태계 만들자”

“랩(연구실)부터 팹(공장·상용화)에 걸쳐 18개국, 90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85%가 스타트업(창업기업)이에요. 팹에서 랩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간극이 있다면 초기 단계뿐 아니라 마지막 단계까지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난드 카만나바르 어플라이드벤처스 글로벌 투자총괄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제시한 혁신적 아이디어가 산업 현장에서 꽃피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 메시지다. 어플라이드벤처스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AMAT)가 만든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다.

카만나바르 총괄은 “첫 투자 기업인 아테스토는 AMAT의 기술센터와 최첨단 팹에서 대량 생산을 지원해 메모리 제품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딥테크(Deep-tech)는 아이디어를 상용화하려면 10~15년 이상 걸린다”며 “파트너 대학과 기업·연구소 등은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MAT는 40억 달러를 투입해 최첨단 장비 등을 지원하는 ‘에픽’을 설립했다.

최근 글로벌 경기 한파를 겪으면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는 된서리를 맞았다. 등록 기업 숫자로 3만3000개를 넘었지만,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 유니콘은 14개(올 상반기 기준)에 불과하다.

세계 유니콘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2%에서 올해 1.2%로 줄었다. 여기에다 최근 미·중 패권 갈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기술 혁신이 경제를 넘어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딥테크 창업·육성이 중요해진 이유다. KAIST와 서울대, 중앙홀딩스는 이날 ‘기술패권 전쟁의 시대, 혁신창업이 곧 안보’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막하고 딥테크 혁신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와 인력난, 자금 부족 등 테크 스타트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날 또 다른 기조연설자인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대사는 “이스라엘은 400개 기업이 연구개발(R&D)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기업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고, 98개의 유니콘을 배출했다”고 소개

“2023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아난드 카만나바르 어플라이드 벤처스 글로벌 투자총괄,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

강정현·김중호 기자

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제약에 우선권을 둔 인재 육성 ▶창업을 북돋우는 방위군 시스템 ▶항상 질문하는 유대교 문화 등을 이스라엘이 ‘창업국가’로 불리는 비결이라고 꼽았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금융은 어렵겠지만 테크 산업은 회복 중”이라며 “정보 기술 인프라가 강력해 로켓이 파괴할 수 없다”고 자신했다. 이들은 한국과의 협업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만나바르 총괄은 “한국(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토르 대사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디자인·마케팅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이스라엘의 파괴적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와 안보 위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첨단 과학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

피오트’처럼 KAIST와 육군사관학교에서 우수한 인력을 교육하고, 학위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패권 전쟁이 세계 공급망을 재편하고, 경제산업 지도를 바꿔놓고 있다”며 “혁신기술 기반 창업은 국가의 든든한 안보 방파제가 된다. 혁신창업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성공의 꽃을 피울 수 있게 탄탄한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의 토론은 뜨거웠다. 배현민 KAIST 창업원장을 좌장으로 열린 ‘한국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막는 것들’이란 토론에서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지주(KST) 대표는 “중국이나 미국처럼 사전에 허용하고,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진호 포인투테크놀로지 대표는 “스타트업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인력 수급”이라며 “해외의 우수 두뇌를 유치하기 위해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거나 장기간 세제 혜택을 주는 등 파격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은경·김수민 기자



남현희, 전청조 보자마자 “뿔 보”

6시간 대질조사 분위기 살벌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사진)씨가 전 연인 전청조(27·구속)씨와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남씨와 전씨를 함께 불러 6시간에 걸친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찰에 출석한 남씨는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남씨와 전씨의 대질 조사는 오후 2시쯤부터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조사 검토에도 3시간 30분이 걸려 남씨와 변호인단은 오후 11시 반이 되어야 조사실 밖으로 나왔다.

이날 대질 신문에는 남씨와 전씨, 남씨의 법률대리인 2명과 전씨의 법률대리인 2명, 이들을 고소한 남씨의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1명이 참석해 삼자



면이 이뤄졌다. 대질 신문에서는 남씨가 전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나아가 공모했는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질 신문 동석자에 따르면 조사실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한다. 조사 시작과 동시에 남씨가 전씨를 향해 “뿔 보”라고 짜증 내는 듯 발언하자, 경찰이 원만한 조사 진행을 위해 발언 순서를

정해 전씨와 남씨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날 조사에서 남씨 측은 공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했다고 한다.

남씨는 조사를 받기 직전인 8일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이름 빼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저 또한 속았다”며 “전청조가 나를 공범이라 몰기 위해 자신의 집을 우리 집으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6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국위선양을 위해 인생을 다 바쳐 살았다.

앞으로 얼마나 제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말 제가 죽어야 이 사건이 끝나는 겁니까?”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전씨 측은 남씨가 범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씨의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씨가 이미 올해 3월부터 남씨에게 범행에 관해 이야기했다”며 “남씨가 전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 측과 의견이 같았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변호인단은 “오늘 조사가 길게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남씨가 돌연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해서 저녁 식사 이후 조사가 중단됐다”며 “남씨가 조속히 건강을 회복해 추가 조사에 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또 남씨가 자신의 휴대폰 2대를 임의 제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추후 제출이 이뤄진다면 더 많은 자료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전씨의 사기 혐의로 인한 피해자가 20명, 사기 피해액은 26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혜연 기자

▶ 1면 ‘강춘강씨’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1970년 8월 서울 흥릉에서 ADD가 세워졌을 때 창립 직원이었다. 경북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신용군 ADD 초대 소장의 비서로 채용됐다. 영문 문서를 번역하거나 외국 손님과 상담하는 게 그의 주요 업무였다.

-ADD 초창기 여건이 어려웠다. “처음엔 ADD의 연구시설이 변변찮았다. 해외에서 공부한 인재들이 많이 귀국했다. 당시 한국이 잘 살지 못해 그들에게 큰돈을 주지 못했다. 정부가 더 챙겨 주려고 집을 지어줬다.

그래도 외국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모자랐다. 그런데도 귀국인재들은 자주국방을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연구했다.”

강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은 ADD를 자주 들러 브리핑을 받고 현안을 꼼꼼하게 챙겼다. ‘뭘 필요하시나’고 물으면 항상 ‘보리차 한 잔이나 달라’고 했다”고 회상했다.

강 여사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강 여사에게 ‘여자도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그리고 1972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상담심리교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필라델피아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특수아동 교육·상담 업무를 맡았다. 미국 시민권을 땀지만, 자신의 뿌리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한다.

-ADD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내가 대구서 나고 자랐는데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대구로 몰려왔다. 전쟁 통이라도 학교는 계속 열렸고,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쳤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다. 한국이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 것이라 믿었고, 지금 선진국이 됐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몰랐는데, 지금은 내 이름만 보고도 한국 사람이냐고 묻는다. 후배들이 너무나 고맙다.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데 ADD가 많이 노력했다. 계속 혁신했으면 한다.”

강 여사는 “내 기부 결정이 한국 국방연구분야 기부 릴레이의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DD 측은 강 여사의 뜻을 잘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재 국방선임기자

김원근 변호사

이민비자 영주권
비즈니스 관련·파산신청

- 결혼 영주권·취업 영주권·한국영사 심사 E-2 비자 등 각종 비자·신분변경
- 리스계약·비즈니스 세들먼트·프랜차이즈
- 개인·비즈니스·챗터 7·챗터13·학자금용자 감면
서브챗터 5·챗터 11·파산법원의 각종재판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 | |
|--|--|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카중보험 적용 됩니다 |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연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백혈병 17세 유리, 미세잔존암 검사 7차례 무상 지원

희귀병·소아암 어린이에 희망을

“한 줄기 빛을 만난 느낌입니다. 희망을 갖게 됐어요.” 석민(가명·9)이는 희귀병을 앓는다. 1세 수준의 지능에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다. 병명이라도 알기 위해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아직 모른다. 그래도 석민이 아빠가 긴 ‘진단 방랑’을 끝낼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갖게 된 건 고 이견희 전 삼성 회장의 기부금 덕분이다.

이 전 회장 유족이 2021년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기금으로 서울대병원에 3000억원을 기부했고, 병원 측이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을 꾸려 전국 의료진과 미진단 희귀병 환자의 병명을 찾아주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기부 3년 차를 맞아 속속 성과가 나오고 있다. 8일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열린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 심포지엄에서 이런 성과들이 발표됐다.

고정민(소아청소년과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 사무국장



이견희 전 삼성 회장 유족에 따른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기금이 하나들 성과를 내고 있다. 8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성과 발표회 모습. 전민규 기자

은 “소아암 1089건, 소아 희귀질환 1746건, 공동연구 1149건 등 총 3984건의 진단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10월 기준 256명의 희귀병 환자가 바라이서-윈터 증후군, 아르블레다-탐 증후군, 보쉬-분스트라-샤프 시신경위축 증후군 등 낯선 자신의 병명을 알게 됐다. 치료

영역에서도 소아암 14건, 소아 희귀질환 627건, 공동연구 1695건 등 총 2336건의 성과를 냈다. 전국 소아 희귀질환 857건, 공동연구 5336건 등 총 6193건의 코호트가 등록됐다.

희귀병은 환자 수가 적고 감별 진단이 쉽지 않아 길게는 16년까지도 ‘진단

방랑’을 한다. 기부금 덕에 여러 사례를 파고들 수 있었다. 오석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희귀병 연구는 큰 지원이 없으면 감히 업무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주제”라며 “기부금을 통해 5년 걸릴 연구를 1년 만에 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채종희(소아청소년과 교수)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사업단 희귀질환 사업부장은 “진단하지 못한 환자에 대해선 유전자 기능 연구도 동반돼야 하고, 과학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산을 쌓아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진단뿐 아니라 치료로 이어지기 위한 긴 여정의 첫 번째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혜연(가명·14)이는 뇌종양이 재발해 세 차례 수술했다. 이견희 기부금에서 지원하는 600만원 상당의 첨단 유전자 검사로 무료로 받았고, 재발의 원인이 된 유전자 변이 목록 10여 개를 찾아냈다. 혜연이 엄마는 “지원이 없었다면 생각 못했을 것”이라며 “희망이 되는, 감사한 일”이라고 말했다. 많은 어린이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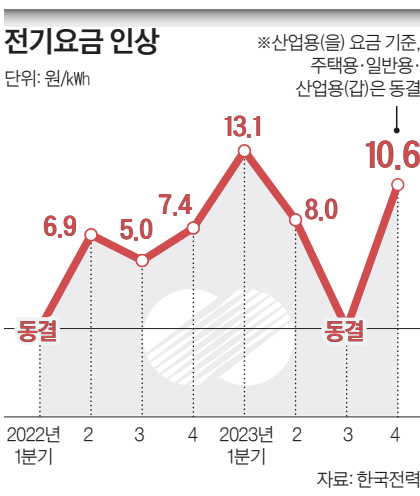
자가 100만원인 미세잔존암 검사 등을 무료로 지원받았다. 급성 림프구 백혈병을 앓는 17살 유리(가명)는 미세잔존암 검사를 7차례 무상으로 지원받아 완치 여부를 꾸준히 추적했다. 현재는 일상으로 복귀해 한 달마다 혈액검사를 받으며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의 백혈병 완치율을 85%에서 95%로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김한석 서울대병원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단장은 “160곳 의료기관에서 1071명의 의료진이 진단·치료·코호트 연구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통해 전국 환자가 동일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무 삼성사회공헌업무 총괄사장은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 전 회장 유지를 전했다. 이어 “삼성의 모든 임직원도 소아암·희귀질환 극복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4분기 전기료, 산업용만 10.6원 인상... 소상공인·가정용 동결

(kWh당)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산업용(대용량)에서만 kWh당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일반용 요금 등은 동결이다. 한국전력은 인력 감축과 자산·지분 매각 등을 담은 추가 자구안도 마련했다. ‘절반의 요금 인상’으로 빚다미 한전의 숨통이 일부 트였지만, 경영 정상화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8일 이러한 내용의 전기료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자구대책 준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이유로 한 달 넘게 미뤄지다 결론이 났다.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 영향이 큰 일반 가구,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전기료는 그대로 두고 산업용 요금에만 손대는 게 골자다. 산업용에서도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40만 호 요금은 동결됐다. 대기업 등 대용량 수요자 중심인 산업용(을) 4만2000호의 전력량 요금만 9월부터 kWh당 평균 10.6원(6.9%) 인상된다. 이들의 월평균 요금은 6300만원(지난해 기준) 수준인데, 한 달에 431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식이다.

또한 산업용(을)에서도 시설 규모가 큰 사업장 요금을 상대적으로 더 올렸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48.9%)을 차지하는 데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산업용(을) 고객 요금만 선별적으로 올리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사용량 절반에만 매겨지는 이번 인

상 폭을 4분기 전체 전기료에 대입해 보면 한 자릿수인 5원 안팎 올린 것에 불과하다.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정을 두고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되 물가, 서민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업계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생과 직결된 전기료가 크게 오르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피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용·일반용은 지난 3분기에 이어 또 동결이다. 향후 국제 연료 가격, 환율 추이 등을 보면서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용 대용량 요금이라도

올린 데엔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47조 원, 올 상반기 기준 부채 201조원인 한전의 재무 부담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값싼 전기료는 미국의 철강 상계관세 부과에서 보듯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올해 4000억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재무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산업부는 올해 전기료를 kWh당 51.6원 올려야 2026년까지 한전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4분기까지 실제 인상은 26원 남짓으로 사실상 목표의 절반에 그친 셈이다.

세종=정준훈 기자

감사원 새 감사위원 김영신 유력... 윤 정부 첫 교체

(공직감찰본부장)

감사원의 새 감사위원으로 김영신(사진) 공직감찰본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8일 “11월 중순에 임기를 마치는 유희상 감사위원 후임으로 김 공직감찰본부장이 유력하다”며 “곧 임명 제청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 대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온 김 본부장은 행정고시 39호로 감사원 감사관과 심의실장, 행정안전부 감사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공직감찰본부장을 맡아왔다.



과를 토대로 피감 기관에 대한 주나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감사원장을 제외한 6명의 감사위원 중 2명은 관례로 감사원 내부 인사가 승진하고, 나머지 자리에는 법조계나 학계, 정부 관료 출신이 두루 임명돼 왔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감사위원이 교체되는 경우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당시 문재인 대

통령과 협의해 이미 현 감사위원을 임명했을 때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김 본부장이 감사위원이 되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7명의 감사위원 중 3명(최재해 감사원장, 이미현 감사위원, 김영신 본부장)의 ‘우군’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김 본부장은 유병호 사무총장과 가까운 인사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은석 감사위원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다만 전현희 전 위원장이 김 본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대라 임명 제청될 경우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인요한 만난 홍준표 “대통령 이용해먹는 뜬보잡 정리해 달라”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오른쪽)이 8일 대구시청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면담하고 있다. “한 수 배우러 왔다”는 인 위원장을 앞에 두고 홍 시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뜬보잡’들이 너무 설친다”며 “대통령을 호가호위 이용해먹는 사람들이 문제다. 대통령이 최근 그걸 깨닫고 멀리하고 있을 것”이라며 “혁신위가 그런 세력을 정리해 달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뉴스1]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er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1월 HOT 리스팅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꼭,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020년
코스코 부근 새 타운홈

\$890,000

센터빌 타운홈

방 3 + 화 3.5, 차고1
1640sqft
넓은 타운홈, 울수리

\$600,000

센터빌 싱글홈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울수리된 집

\$675,000

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베를린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우리말 바꾸기

‘장꾸미’와 ‘잔망미’

최근 들어 부쩍 많이 보는 용어가 ‘장꾸미’다. 무슨 뜻일까?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장꾸미 가득” “장꾸미 폭발” “장꾸미 넘친다” 등처럼 사용된다.

주로 연예인의 행동을 묘사하거나 야기 또는 강아지 등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이는 신조어다. 무언가 감은 잡힐 듯하지만 정확하게 의미가 와닿지는 않는다. 알고 보면 별 대단한 말은 아니다. ‘장꾸’는 ‘장난꾸러기’의 줄임말이고 ‘미’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미(美)’ 자다. 여기에서의 ‘미’는 매력이나 끌림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내적으로 쾌감을 주는 감성적 무엇을 가리킨다. 그래서 ‘장꾸미’는 꾸밈없고 자유스러운 장난끼가 주는 매력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더불어 ‘잔망미’도 요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용어다. ‘장꾸미’와 달리 ‘잔망미’는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여기에서의 ‘미’도 앞서 얘기한 ‘미’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잔망’이 생소하든 사실 이는 ‘장꾸’처럼 억지스러운 줄임말도 아니고 사전에 올라있는 표준어다. ‘잔망’은 알뜰도 록 맹랑함 또는 그런 짓을 가리키는 말이다. “잔망을 댄다” “잔망을 부린다” “잔망스럽다” 등처럼 쓰인다. 언뜻 보면 그 사람의 속성을 부정적으로 서술하는 말인 듯하지만 국립국어원은 딱히 그렇지는 않다고 해석한다. 요즘은 대부분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유홍주 칼럼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지켜만 볼 것인가



유홍주
한미자유연맹 상임고문

북한이 최근 국경을 열기 시작했다고 한다. 거의 3년동안 집으로 갈 수 없었던 외교관, 파견노동자들이 속속 귀국하고 대부분은 익숙한 고향에서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중엔 이번 귀환으로 생사가 갈리는 사람들도 있다. 바로 중국 내 탈북자들이다.

그들은 중국 공안에 의해서 체포되고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이다. 그들의 참혹한 운명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세계 인권보호운동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북한과 중국 당국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의 중국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중국은 과거보다 탈북자들을 송환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대량 탈북이 시작된 시기는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대였다. 1990년대 말 연변을 비롯한 중국 여러 지역에는 불법적으로 입국해 숨어서 살았던 북한 출신자들의 숫자는 15만이나 20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에 이렇게 많은 북한사람들이 중국에서 살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중국 공안이나 특무기관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물론 당시에도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송환했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에 지금처럼 열정적이지 않았다.

중국 당국자들이 엄격하지 않았던 이유는 몇 가지 있다. 탈북민들은 자유를 찾고자 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늘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 특히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도 제3국에서의 억류나 강제 복송이 가장 큰 위협이다. 유엔과 북한 인권단체들은 코로나 기간 체포돼 중국 감옥에 수감된 탈북민이 2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 하고 있다.

탈북민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감옥·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수십 년간 중국 정부에 복송 중단을 촉구해왔다. 얼마 전 한국 통일부장관은 중국을 향해 공개적으로 “탈북민을 의사에 반해 복송해선 안 된다.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민을 전원 수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의 탈북민 강제 복송은 여전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도 중국이 지린성 감옥 등에 수감됐던 탈북민 600여 명을 ‘군사작전 하듯’ 강제 복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대규모 탈북민 강제 복송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10월 9일밤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보위부가 직접 지휘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중국이 1982년에 가입한 유엔난민협약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박고 있다.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목적의 밀입국자’로 규정한다. 그렇다고 해도 탈북민 강제 복송은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배된다.

협약에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엄연히 한국국민이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으로 강제 송환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대응은 우리가 원하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정부 대응만 아쉬운 것뿐일까. 늘 인권과 평화를 들이대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바빴던 좌편향 정당과 언론들이야말로 잠잠하다 못해 고요하다. 당일에 잠시 뉴스로만 보도됐을 뿐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침묵이나 유감 표명만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선 강제 복송’을 비난한 논리는 무엇이었나. 대한민국 헌법 제 1, 2, 3조를 다시 떠올려 볼때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유엔 등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야 한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복송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에서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북한 내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제일 중요한 변화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국과 중국 간 대결이다. 이 대결 때문에 중국은 이들 북한 주민들이 알지 말아야 하는 자유 세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국 당국자들은 북한 당국의 안정적 현상 유지를 위해 탈북자들을 열심히 수색하고 송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중국은 지난 1982년 유엔난민협약과 1988년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유엔 회원국으로서 강제송환 금지원칙(Non Refoulement)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중국은 알고 탈북자 복송을 중단하기 바란다.

독자마당

삶의 지혜

얼마 전 미국의 한 언론이 ‘한국 사람들은 바쁘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보도한 것을 봤다.

하지만 나는 한국 사람들이 늘 바쁘게 생활하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생활 환경에서 온 습관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는 겨울이 길고 추운 지역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따라서 가능한 날씨가 따뜻할 때 먹을거리를 많이 비축하려면 늘 바쁠 수밖에 없다. 한국을 대표하는 채소라고 할 수 있는 배추와 무도 날이 추워지면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배추와 무를 상하지 않게 오래 보관

하기 위해 생각해 낸 저장법이 김치다.

음식은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나 한 지방의 음식은 그곳에서 자라는 음식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의 음식이 특별히 더 좋고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말하고 미국사람들은 미국 음식이 맛있다고 말한다. 오랜 기간 특정 음식을 먹게 되면 입맛도 그 음식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테니스를 열심히 하다 보면 테니스를 잘하게 되고, 테니스가 운동 중 에서 제일 좋다고 말한다. 골프도 축구도 비스

하다.

바쁘게 움직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바쁜 것이 삶의 패턴이다. 따라서 바쁘지 않을 때는 무언가 이상하고 허전하고 불안하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측면만 본 것이다. 한국 사람이 늘 바쁘게 움직이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생존 수단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다.

서효원·LA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구글 스마트 쇼핑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유튜브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제작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이스라엘, 하마스 제거하면 가자지구 통치권 PA에 넘길듯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제하는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기습공격을 감행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스라엘에서 1400여 명이 살해되고 240여 명이 인질로 잡혀갔다. 총돌이 길어지면서 양측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궤멸을 선포하며 가자 지구에 보복 공습을 시작했고, 인질이 풀려날 때까지 식량·전기·연료를 끊는 전면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고 인질을 최대한 구하면서 하마스를 제거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달 27일 지상군을 투입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제2의 독립전쟁'으로 천명했다.

하마스-사우디-이란의 동상임동

시기적은 지하터널에 매복한 하마스 대원을 고사시키고 병원과 난민촌에 숨은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무차별적 공습이 이뤄지고 있어 민간인까지 희생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긴장 완화를 위해 급히 중동 현지를 방문했고, 국제사회가 휴전을 촉구하고 있으나 효과는 없다.

이번 무력 충돌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수니파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정상화 협상에 속도를 내는 와중에 발생했다. 하마스는 자신들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사활을 걸고 도발을 감행했다. 앞서 2020년 같은 수니파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기념비적 데탕트를 이뤘다. 모로코도 동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니파 맹주 사우디까지 가세하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하마스의 입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나아가 하마스의 최대 라이벌이자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꾸리고 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최대 정파 '파타'가 정당성을 굳히고 경제 이익까지 거머쥘 수 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조직은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다. 하마스도



한 이스라엘 병사가 지난 6일 가자 지구 인근 국경에서 포탄을 나르고 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지난 7일 한 달을 맞았다. [AFP=연합뉴스]

서는 현상을 뒤엎어야 할 동기가 강했다. 왕실 수호 전략으로 파격적 개혁을 추진 중인 사우디는 역내 안정과 이스라엘과의 협력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는 조건으로 미국의 철벽같은 방위 조약과 이스라엘의 대(對)팔레스타인 유화책을 요구했다. 이란의 핵 개발과 친이란 조직인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이슬람 성지 수호국으로서 팔레스타인 대의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란은 사우디의 최대 맞수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적이다. 이란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이라크의 인민동원군, 시리아의 군소 민병대 등을 후원하면서 중동 역내에서 팽창주의 정책을 추진해왔다.

극우 정치 기울며 안보 취약점 노출

이스라엘의 안보 실패는 자업자득 측면이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연정은 포퓰리즘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선동해왔다. 국민 편 가르기에 앞장서고 팔레스타인을 향한 초강경 정책

을 폈었다. 2022년 11월 출범한 집권 극우 연정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네타냐후 총리를 보호하려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강행해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다. 특히 예비역 1만 여 명이 복무 거부로 서명했고 군의 중추 세력이 이탈해 전력 공백도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조차 이스라엘 극우 연정의 유대인 불법 정착촌 확장과 팔레스타인 시위대 유형 진압을 비판했을 정도였다.

이번 분쟁으로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데탕트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그렇지만 사우디는 하마스의 폭력이 데탕트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적 계산이라고 비난하며 수교 협상 재개를 암시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이란의 패권 추구 야욕에 굴복할 수 없다며 다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수교 빅딜의 수혜자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자제를 촉구하며 국제사회의 여론을 살피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다른 국가들까지 개입하는 '제5차 중동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주변국들은 흑시 모를 내부 동

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권 지키기에 급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측면 지원하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일부 급진주의 조직이 반이스라엘 전선을 확산하려고 시도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란의 강경과 집권 세력은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비롯된 경제 파탄과 허잡 경제 작용 반대 시위에 따른 국내 여론의 악화로 전쟁 개입이 부담스럽다.

지상전 이후 팔 자치정부 통치 논의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후원국 이란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무력 도발을 제한할 것이다. 이집트는 가자 지구와 맞닿은 라파 국경을 열어 인도적 차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을 대피시키는 제안을 거절해오다 최근엔 외국 여권 소지자와 부상자에 한해 입국을 잠시 허용했다. 팔레스타인 주민이 대거 유입되면 가뜰이나 인기 없는 권위주의 정권이 이끄는 이집트 국내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지상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은 하마스 세력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야 끝날 것이라고 공언한다. 이스라엘의 역린을 건드린 하마스가 존재하는 한 공존과 평화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상전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 지구의 통치권을 이양받고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치안을 돕는 방안이 이스라엘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한편, 하마스의 도발과 유사한 북한의 기습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하마스 같은 급진주의 조직은 현상을 타파하고자 위협을 과감히 감수한다면, 북한은 체제 수호를 위해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국제사회의 과도한 관심을 부담스럽게 여긴다. 세상과 잦은 교류를 멀리하고 자발적으로 고립돼 살겠다는 북한 정권엔 외부 자극이 체제 안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과감한 공격 대신 드러나지 않지만 피해와 혼란을 줄 수 있는 공격을 공리할 것이다. 그래서 더 위험한 상대일 수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센터장**

유자녀 커리어우먼의 '출산할 결심'

"어유, 애국자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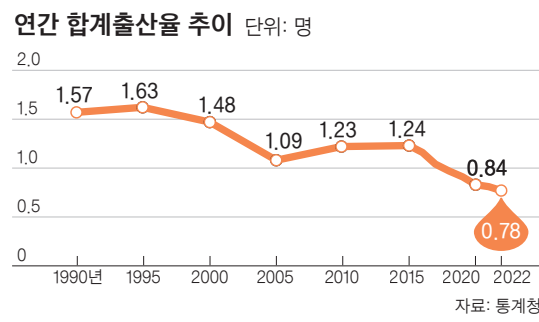
둘째를 임신한 후 '애국자' 칭송을 받을 때가 많다. 3년 전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땐 '국뽕(배타적 애국주의)'을 강요하는 것 같아 살짝 반감이 생겼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 우려가 커지는 엄중한 시기에 임신·출산이라는 행위가 추앙 받는다. 받아들이고 싶어진다.

문제는 단지 추앙으로 그쳐선 안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2년 52.6%→2017년 58.3%→2022년 61.2%로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유(有)자녀 30대 여성의 경우

53.5%로, 자녀가 없는 여성(78.7%)에 비해 25.2%포인트 낮았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얘기다.

자녀가 많은 여성일수록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도 통계로 나타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2019년 대비 2022년) 30~45세 여성 고용률 증가폭은 1.7%포인트로 남성(0.3%포인트)보다 높았다. 자녀가 1명인 여성의 고용률은 1.4%포인트 증가했지만 2자녀(-0.4%포인트), 3자녀 이상(-0.7%포인트)인 경우는 모두 고용이 감소했다.

육아는 부부 공동의 몫이란 인식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주로 여성들이 커리어를 포기하거나 희생



하는 이유로 성별 임금 격차가 꼽힌다. 이제껏 가정은 뒤로한 채 더 오랜 시간 회사에 충성을 다하는(?) 이에게 더 많은 임금과 승진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시대를 살아왔고, 그 대상은 주로 남성이었다. 도태되고 싶지 않은 여성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돌봄을 외주화하거나 자녀를 갖지 않거나. 전자가 여의치 않다면 답은 뻔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중요한 건 '출산 후 경력 단절, 처우 악화→학습효과에 따른 무자녀 결심'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다. 오랜 시간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연구해 온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이른바 '탐욕스러운 일자리(greedy work)'에 대한 보상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여성들이 일하면서 아이도 낳고 싶게 해야 저출산·저성장률 극복할 수 있다. 그러려면 30대 이상 유자녀 커리어우먼들이 더 굳건하게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부당한 차별이 있다면 맞서야 한다. 그 래야 후배들도 '출산할 결심'을 할 수 있을 테니. 두 번째 출산을 앞두고 여러모로 비장한 마음이다. **김경희 경제부 기자**

보험 에이전트 모집합니다.

유니티 보험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보험/재정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 / 다양한 보험상품을 배울 수 있는 기회
- / 안정된 수입이 가능한 평생 전문직
- / 경력자, 보험 배우시고 싶은 분 모두 환영

유니티의 강점

- 업계 최고의 보험/재정 전문가들의 교육과정
- 기초부터 최근 이슈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
- 유니티의 각분야 보험 전문가들과 인적 네트워크
-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곳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대표번호: 888-756-7549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VA 571.999.2755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시설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에 나선 거야의 힘자랑 중독증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상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뒤 직후엔 윤석열 정부 언론 장악,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요구서도 동시에 국회에 제출했다. 메가시티 서울, 공매도 금지 등 여당의 정책 드라이브로 수세에 몰린 국면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 법안은 힘의 우위를 앞세워 마냥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성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이 집권 땐 공영방송 정상화에 손 놓고 있다가 야당으로 상황이 바뀌자 자신들 구미에 맞는 인사로 이사진을 채우려는 꼼수 개정안이다. 전형적인 내로남 불에, 몰염치한 처사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계획이다. 강행 처리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방안

도 검토하고 있다. 혹여 민주당이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속셈이라면 큰 착각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불쌍사납고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국회의 모습을 개선하겠다"며 신협정에 합의한 지 한 달도 안 됐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1야당이 또다시 독주로만 치닫한다면 민심의 역풍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어제 의총에서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 여부를 결론내려다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로 미뤄졌다고 한다. 당론으로 채택되면 곧바로 발의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해임하는 등 탄핵 사유가 명백하다고 주장하지만, 헌법·법률 위반의 소지가 분명치 않은 데다 취임 두 달 남짓 된 장관급 인사를 겨냥한 탄핵 추진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탄핵안이 발의, 의결되면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질 공산이 크다. 선거기간 중 '이동관 무력화'를 노린 총선용 쟁점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핍하면 '탄핵-해임'을 남발하려는 민주당 탓에 지금 추가 거론되는 인사만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회의 구성원의 3분의 1에 이른다. "이쯤 되면 습관성·중독"이라는 비판을 민주당은 새겨듣기 바란다.

결핍하면 '탄핵-해임'을 남발하려는 민주당 탓에 지금 추가 거론되는 인사만 윤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회의 구성원의 3분의 1에 이른다. "이쯤 되면 습관성·중독"이라는 비판을 민주당은 새겨듣기 바란다.

민주당, 쟁점 법안 상정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도 추진 여당발 정책 드라이브 수세 벗어나려고 무리수 남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오늘로 미뤄졌다고 한다. 당론으로 채택되면 곧바로 발의할 태세다. 민주당

'어린이들의 무덤' 된 이-팔 전쟁... 당사국들 자제해야

한국전력과 정부가 한 달 넘게 미뤄졌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어제 발표했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업소용), 중소기업 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 요금 중에 전기를 많이 쓰는 대용량 수요자 요금을 kWh당 10.6원을 인상했다. 전체 전기 이용 고객의 0.2%가 인상된 요금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분사 조식을 20% 줄이는 등 추가 자구책도 발표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을 가져다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올리기는 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값싼 전기요금은 기업의 에너지 절감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 불필요한 통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을 사실상 정부 보조금으로 보고 미국이 최근 한국산 철강 제품에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기업 투자를 늘린다며 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을 적극 옹호했던 윤석열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만 폭 집어 올리며 기업 부담을 늘린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보기 힘들다. 전체 전기 이용 고객의 99.8%인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요금만 두 분기 연속 동결한 대목은 최근 정부가 총선을 의식해 쏟아내고 있는 선심성 표푼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이번 요금 인상 역시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엔 역부족이다. 한전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01조원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고, 200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원에

달한다. 이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올해 4000억 원, 내년 2조8000억원의 재무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기대엔 한참 미치지 못한다. 당초 산업부는 올해 전체 전기요금을 51.6원 올려야 한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올해 전체 요금 인상은 kWh당 26원 정도에 그쳤다.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전과 정부는 물가와 서민 경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하지만 3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이어 산업용 이외의 전기요금을 계속 묶어두는 뺄질 처방이 이어지고 있는 건 문제다. 총선 직전인 내년 1분기에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점에서 한전과 정부는 이번엔 더 적극적으로 요금 현실화에 임했어야 했다.

한전의 부실은 송·배전 등 전력망 투자를 위축시키고 발전 사회사와 협력업체의 부실로 이어지며 전력 생태계 전체의 활력마저 떨어뜨린다. 에너지 가격 변화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요금 결정에 정치 논리가 작동하지 않도록 요금 결정권을 독립적 위원회에 넘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전기요금을 둘러싼 갈등과 정책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정치요금'으로 변질된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만신창이가 된 한전을 정상화하기 힘들다.

보수의 품격

김현기의
시시각각
時視各角



일본이 자랑하는 암 치료법인 '중입자선(重粒子線)' 치료시설은 1994년 세계 최초로 생겼다. 중입자선을 빛 속도의 70%까지 가속해 몸속 깊은 곳의 암세포를 최대 에너지로 공격한다. 그런데 이 첨단 치료시설이 정작 수도 도쿄에는 없다. 지방 도시 7곳에 분산돼 있다. 암환자 수? 물론 도쿄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도 그렇게 한다. 말로만 지방 균형발전을 외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다. 일본을 찾은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지방의 힘이다. 이유가 있다. 1970년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의 '일본 열도 개조론', 2010년대 아베 신조 총리의 '지방 창생'에 이르기까지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는 논리와 단계, 일관성이 있었다. 사람과 물건, 정보를 수도에서 지방으로 역류도록 한 게 다나카였다면 아베는 지방마다 특색적 산업을 일으켰다. 다나카 시절 마쓰시타전기(현 파나소닉)는 광역 지자체에 '1현(県) 1공장'을 실현했다. 아베 8년 임기 중 후쿠이현은 세계 유수의 안경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니가타현은 장인(匠人)들이 운집하는 모노즈쿠리(정교한 물건 만들기) 메카로 부상했다. 대신 도쿄는 체중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근육질'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역사적인 것은 지키고(守), 기존의 것을 파괴하고(破), 과거와 현재에서 벗어나(離) 미래를 위해 새로운 걸 창조하는 '수파리(守破離)' 도시재생에 승부를 걸었다.

뜬금없이 튀어나온 '김포, 서울 편입' 촌극은 생각의 폭, 고민의 깊이가 모두 얕기 그지없다. 비판론이 거세어지자 여당은 부산·광주까지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한다. 포푼리즘이 원래 그렇다. 악순환이다. 더 스타일 구기기 전에 이쯤 해서 접는 게 낫다.

답답한 일은 이뿐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이 (이자로) 갑질을 많이 한다. 정부가 방지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지 이틀 후, 소상공인 대회에서 어파컷을 날린 지 몇 시간 만에 하나은행(1000억원)을 비롯한 은행권은 거액의 금융지원 방침을 내놨다. 윤연초 대통령

의 '돈잔치' 발언 이후 상황과 빼달았다. 하지만 고금리는 이미 세계적 추세다. 일본 미쓰비시UFJ은행의 경우 10년 만기 예금금리를 무려 100배(0.002%→0.2%) 올렸다. 대출금리도 마찬가지다. 일본이라고 왜 고통받고 허덕이는 서민, 소상공인이 없겠나. 하지만 시장이 정하는 금리를 정부와 지도자가 일일이 규제하기 시작하면 순간은 환호하지만, 시장은 왜곡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올해 60조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최대 원인 제공자는 대출규제를 확 푼 정부 아니었던가. 정례 행사마냥 '은행 때리기'로 정치적 고비마다 자금 각출을 요구하는 건 비정상이다.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뜯어고치는 게 정상이다. 카카이를 직접 겨냥해 "매우 부도덕하다"

메가시티, 은행 때리기 고민은 했나 과연 이런 게 보수의 변화 방식인가 중도 보수는 '칼' 보다 상식을 원해

고 비판한 것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듯싶다. 관계 기관이 알아서 처벌·제재하면 될 일이다. 창업자 김범수의 수명을 자르게 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시스템이 해야 한다. 트럼프의 특정 기업(페이스북·트위터) 때리기가 비난받은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이미 항간에는 "대통령 외유파트너 대기업들만 무공지대"란 원성이 나오는 판이다. 소수의 통쾌함보다 다수의 진중함이 우선이다.

근대 보수주의 창시자인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의 품격』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은 '혁명'을 지지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개혁과 변화를 얼마나 주의 깊고 신중하게 시도하느냐의 차이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많은 중도 보수 유권자 또한 같은 생각이었을 게다. 그런데 과연 지금의 보수 정부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소수의 극보수는 '칼'을 원할지 모른다. 하지만 대다수의, 그리고 현 정부의 진짜 명운을 쥐 중도 보수는 원칙과 상식을 갈구한다.

순희특파원 겸 도쿄총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 02-751-5555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www.joongang.co.kr	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권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문의: 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기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주)세빛마을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NHK,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편하게!



30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인터넷 최저가항공 홈페이지보다 저렴한 요금!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800.564.4429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사무직(센터빌지점), 가이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문의 : 703 543 2322 레나 고 실장

추수감사절특선
롱우드 가든
 당일관광 11/18, 11/24 \$159

SIGHT & SOUND THEATRE
MIRACLE OF CHRISTMAS
 2023 **성극**
 당일관광 12/20 \$169
 Manor Buffet, 아이쉬마켓

크리스마스 특선
라디오시티 라켓쇼 \$559
 일년에 단 한 시즌만 공연하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마스 공연, 라디오시티 스펙타클러 쇼 관람
 1박 2일 12/23~12/24
 스테이크 특식 저녁, 브루클린 덤보 야경 포토타임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VISIT KOREA YEAR 2023-2024
한국방문의 모든것!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특전

-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버스 투어
- 모든 옵션 포함
 여수해상 케이블카/외도 + 해금강 유람선/해상 케이블카
 충주호 단양팔경 유람선
 서귀포 유람선
- 최고급 호텔 숙박
 제주롯데호텔/송도메리엇
 거제소노캄/여수소노캄
 경주라한/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
 서울노보텔엠버서더 등
- 고향냄새 솔솔나는 먹거리
 전주비빔밥, 남도한정식
 화정식, 한우육회비빔밥
 안동찜닭, 울회, 해물뚝배기와
 옥돔구이, 갈치조림
 흑돼지구이 등

원터플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의 전문 인솔자와 함께 떠나는 원터플투어 항공 여행

세라강 레나고
 원터플 투어 판매 담당 703.663.8534

2024
 1차 4/16 ~ 4/26
 2차 9/17 ~ 9/27
 3차 10/15 ~ 10/25

\$2990 +항공
 10박 11일
 제주 2박 포함

서울/군산/전주/보성/순천/여수/광양/하동/진주
 거제/부산/울산/경주/삼척/정동진/강릉/속초/제주

서남권 3박 4일 \$849+항공 매주 일	제주 2박 3일 \$699+항공 매주 수
동해권 4박 5일 \$696+항공 매주 금	전국일주 (제주 2박 포함) 9박 10일 \$2299+항공 매주 일

고국건강검진

TMCI Total Medicine Connection Institute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남 \$700/여 \$750 미국국적남 \$910/여 \$975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 100만원 /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520

- 현대아산병원
 - 가천대길병원
 - 서울대병원

일본관광

동경 3박 4일 \$999+항공
 오사카 3박 4일 \$999+항공
 후쿠오카 3박 4일 \$999+항공
 일본완전일주 8박 9일 \$2690+항공

동남아 여행 대한항공 한국경유여행 동남아항공 특가세일

방콕/파타야 3박 5일 \$499+항공 출발: 격주목요일 왓포사원, 플로세움쇼, 파티아 야시장, 산호섬, 전통수상시장, 플로팅마켓, 항공결박사원, 코끼리 트래킹, 악어농장, 백만년비유공원, 태국특산물	푸켓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팡아만 해양국립공원, 아르모디테스, 파동 야시장, 피피섬, 왓찰롱 사원, 코끼리 트래킹	하노이/하롱베이 3박 5일 \$599+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하노이, 엔드, 하롱베이, 하롱테마파크, 호치민명모, 생활관, 비단광장, 한가동사원, 수상인형극	다낭 3박 5일 \$549+항공 출발: 격주일요일 마블아운틴, 호이안, 투본강, 일본내원교, 깃사당, 풍홍의림, 광조화관, 바나힐국립공원, 후예성, 티엔무사원, 선짜사원, 다낭대성당	대만 3박 4일 \$769+항공 출발: 격주목요일 국립고궁박물관, 자오궁, 리오허계 야시장, 101빌딩, 서문정거리, 태료산협곡, 화련 칠성담 해변, 일월담, 구죽문화촌, 아류해방 국립공원, 자우먼거리	싱가폴 3박 5일 \$989+항공 출발: 격주수요일 국립박물관, 가든스 바이더 베이, 리버워더스, 샌더스 웨이브릿지, 하자레인 부기스재래시장, 마리나인공원, 차이냐타운, 센토사섬, 실로소버티
---	--	---	---	--	--

탑여행사 미동부관광

미동부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출발일: 11/20
5박 6일 \$1350
출발 매주 월요일

핵심적인 동부 명소 관광지만 쏙쏙
뉴욕·나이아가라
출발일: 11/20
2박 3일 \$650
출발 매주 월요일

미동부 베스트셀러
천섬·뉴욕 나이아가라
3박 4일 \$899
출발 매주 월요일

가솔 벡차오르는 두글자 NY뉴욕 1박 2일 \$399
11/25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다씨 \$100 마운트버논 &
 루레이동굴 \$125 알렉산드리아 \$150
 필라델피아 \$150

탑여행사 미서부관광

캐나다록키
캘거리 출발 록키 3박4일 \$850 +항공부터

서부 4대캐년
5박 6일 \$990+항공 매주 일

5대캐년 + 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매주 일

미서부 일주
8박 9일 \$1450+항공 매주 일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매주 수

엘로나이프 3박+록키 3박
\$1690 +항공부터

DC런치코르크 \$169(주중) \$199(주말) 티켓구입 가능 2023 성극 Miracle of Christmas \$169 Manor Buffet, 아이쉬마켓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갈래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전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NOV. 9TH - NOV. 23RD, 2023

SAMLIP Hojjimi 
Steamed Bun Gift Pack

Free Hojjimi Steamer + Sweet Red Bean Buns \$11.99
49.6 OZ (4EA + 4EA/PKG X 2 PACKS)



***Until Supplies Last**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COTT CITY, MD 21043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파이낸스 & 연예/문화 Sports
부동산·금융·회계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Thursday, November 9, 2023 C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종증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철거·허가비 포함해 예산 책정하라

욕실 리모델링 비용 및 고려사항

리모델링은 단순히 집을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 실시하는 것만은 아니다. 한 곳에서 수십 년간 살다 보면 건물이 낡고 파손돼 안전 문제로 혹은 사용이 불편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오래된 욕실의 경우 낡은 욕조와 변기, 녹이 슨 샤워기, 금이 간 타일 등도 교체가 필요해진다. 그러나 최근 비싼 물가와 건축 자재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선뜻 리모델링할 엄두가 안 나는 것도 현실. 욕실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는 홈오너들을 위해 필요 비용과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기 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봤다.

철거비 전국 평균 1천~2천불 소요

▶**예산 세우기**
주택 수리 정보 제공 업체 엔지(angie.com)에 따르면 중간 사이즈 욕실 리모델링 시 필요한 비용은 전국 평균 6624달러, LA에서는 1만3183~2만7023달러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닥재를 새 타일로 교체하고 고급 재료를 사용해 욕실 전체를 개조할 경우 최대 2만9500달러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철거허가비**
오래된 욕실 리모델링 시 업체로부터 공사비 외에 철거비 1000~2300달러가 추가 청구되기도 한다. 철거비는 주로 이전 타일, 바닥재, 캐비닛 등을 버릴 때 발생하는 비용. 따라서 전문 업체와 계약 전 철거비가 견적서에 나온 총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철거비 외에도 리모델링 시작 전 시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이때 허가비가 발생한다. 소규모 수리에 대해서는 허가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배관 및 전기 변경 등이 포함된 대규모 개조에 대해서는 시별로 100~1000달러 정도의 허가비가 필요하다.

▶**인건비**
욕실뿐만 아니라 주택 리모델링 시 총비용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건비. 엔지에 따르면 인건비는 총예산의 40~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문 업체 고용 비용은 총공사비의 10~20%, 인건비는 전국 평균 시간당 50~200달러로 나타났다.

▶**사위기·욕조**
욕조 리모델링 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샤워기 또는 욕조 교체다. 샤워기 교체 비용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품 비용만 200달러부터 1만5000달러까지 소요된다. 흡디포나 타겟 등에서 제품을 구입해 홈오너가 직접 설치까지 하면 비용이 적게 들지만 맞춤형 샤워기를 제작하거나 고급 샤워기를 선택해 전문가를 불러 설치하면 1만달러가 넘게 들 수도 있다. 욕조 교체 비용은 4200~1만1000달러 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욕조는 아크릴 소재가 많지만 주철이나 대리석으로 만든 고가 제품도 있다.



욕실 리모델링 시 샤워기나 욕조, 변기 등 새 제품을 구입할 때는 내구성이 좋은 저렴한 소재를 선택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Unsplash.com 캡처)

▶**변기**
오래된 변기는 교체하는 것이 좋은데 새 제품을 고를 때 절수형 변기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변기 설치 비용은 평균 375달러.

▶**또 요즘 유행하는 독립형 욕조는 제품 자체도 고가지만 설치 비용도 비싸다. 욕조와 샤워기 교체시엔 배관까지 손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 배관공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샤워기가 욕조에 설치돼 있고 현재는 커튼이 있다면 이를 떼어내고 유리문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리문 설치 비용은 많이 들지만 욕실 분위기를 완전히 탈바꿈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욕실 바닥으로 물이 새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후엔** '욕실 리모델링'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세계와 만나는 창
The Korea Daily
"미국의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상용건물! 사업체! 주택매매!
이제 오승환과 함께하십시오!
MD 지어인트 No. 1 에이전트
주택 리스팅 받습니다!
MD 리퀴스토어, 세탁소 리스팅 보유
언제든지 상담환영 합니다! (건물 사업체 주택)
비즈니스 손님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Realtor® EA/Notary Public **Seung Oh**
오승환 410.303.0452
GIANT REALTY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O. 410-750-8040 F. 410-750-3992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어디로 가나

너무 성공해도, 실패해도 안 되는 CBDC의 알곳은 운명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게 좋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실제 도입 여부는 물론, 심지어 CBDC 디자인과 운용도 마찬가지다. 선두 주자의 CBDC 디자인이 먼저 출발한 자의 이득을 누리지 못하고 글로벌 표준에서 이탈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1980년대 베타맥스와 VHS의 비디오 테이프 표준 전쟁처럼 말이다.”(소니의 베타맥스 방식이 시장에 먼저 나왔고 기술도 뛰어났지만 후발주자인 VHS 방식이 승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년 전인 지난해 9월 한국의 CBDC 모의실험에서 얻은 교훈을 주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싱가포르 교육센터(STI)와의 웨비나 기조연설에서 한 말이다. 한국은 2021년 8월~2022년 6월 CBDC 모의실험을, 2022년 7~12월 금융기관과의 연계실험을 실시했다.

“테스트는 ‘잘 규율된 혁신’의 과정”

신중한 행보를 이어오던 한국은행이 CBDC를 향한 의미 있는 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4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은행이 ‘예금 토큰’을 발행하고 개인 간 거래에 이를 활용하는 테스트도 내년 4분기에 실시된다. 이날 행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테스트는 혁신의 동력을 살리면서 소비자 피해, 시장질서 교란을 막는 ‘잘 규율된 혁신(well-regulated innovation)’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과 다른 법정 통화 즉, 법화(法貨)라는 의미다. CBDC는 활용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범용(retail)과 기관용(wholesale)으로 나뉜다. 범용은 가계·기업에 직접 발행해 현금처럼 일상 생활에서 사용된다. 기관용은 금융기관에 발행돼 기관 간 자금거래와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된다.

스마트 계약으로 미리 프로그램 가능

예금 토큰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 미리 원하는 결제를 프로그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당시 소비 진작을 위해 카드 결제 방식을 통한 정부 지원금을 뿌렸는데 이를 더 정교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이 소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둘러싸고 전 세계 중앙은행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도 국제결제은행(BIS)과 손을 잡고 기관용 CBDC를 테스트하기로 했다.

대신 어떤 곳에 쓰이는 사태를 확실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예금 토큰은 조건부 지급 방식의 기부금, 명목과 자금 등이 동시에 이전돼야 하는 중고차 매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BDC 논의는 전 세계에서 2010년 후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됐다. BI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93%가 CBDC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고 바하마(2020년 10월), 나이지리아(2021년 10월) 등 일부 신흥국은 범용 CBDC를 이미 도입했다. 중국도 시범운용을 확대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도입을 준비 중이다. 현금 이용이 줄고 경제·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중앙은행도 팔짱 끼고 앉아 있을 수 없게 됐다. 현금을 쓰지 않아 중앙은행 화폐가 유명무실해지면 통화시스템의 근간(anchor)이 사라져 화폐와 지급결제시스템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 비트코인이 주도하는 민간 지급서비스에만 의존하면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지난 8월 페이팔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한 이후 규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9년에도 페이스북(현재의 메타)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출시 계획을 발표하자 주요 7개국(G7)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스테이블코인이 충분한 규제 없이 일상적인 지급 수단으로 확산하면 ▶대규모 인출 사태(코인런)로 금융 불안정 ▶은행 자금중개기능 약화 ▶불법 외환유출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비트코인 기

업에 데이터가 집중되고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한두 개 기업에 정책이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

혁신과 안정성, 프라이버시와 표준 충돌

한국은행은 그동안 범용 CBDC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다. 2021~22년의 모의실험도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범용 CBDC 시스템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9월 IMF-STI 연설에서 지난 실험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CBDC 도입은 기술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다양한 목표 간의 균형을 잡는 일이다. 이 총재는 “모든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완벽한 기술이나 CBDC 디자인은 없다”고 말했다. “당장 급할 게 없어서 혁명적인 혁신으로 평가되는 분산원장 기술(DLT)을 적용했다. DLT는 탈중앙의 메타버스 환경에서 매우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혁신과 안정성 간의 상충관계가 있었다. 한국 경제에서 범용 CBDC를 지원하는 DLT는 확장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DLT 기술이 더 발전하지 않는 한, 일상적인 온-오프라인 상거래에서 CBDC보다 표준적인 중앙집중식 통합원장을 쓰는 게 낫다고 봤다.”

프라이버시(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준수(컴플라이언스)의 충돌도 고민이었다. 실험 초기에는 익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범용 판결에 따른 계좌 동결 같은 기능을 할 수 없었다. 결국 프라이버시를 희생해 규제 준수 수준을 높여야 했다.

둘째, 성공적인 CBDC 개발은 생각

보다 복잡했다. CBDC가 너무 성공적이면 민간의 결제시스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반면, 충분히 성공적이지 못하면 수요가 부족해 존재감이 사라진다. 실험해 보니 후자의 위험이 더 컸다. 핀테크나 신용카드처럼 사용에 따른 보너스 포인트를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범용 CBDC가 성공하려면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성, 다양성, 인센티브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은 기관용 CBDC였다. 주로 신흥국이 범용 CBDC가 도입하는 것은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금융 포용성 때문이다. 계좌보유율이 거의 100%에 달하고 다양한 디지털 결제서비스가 이미 도입된 한국에선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이 총재는 기관용 CBDC에 우선 더 집중하고 이를 범용 CBDC에 결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한은-은행권 2단계 시스템 유지할 듯

최근에는 미국 뉴욕연준, 브라질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등을 중심으로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플랫폼 상에서 금융기관이 예금 등을 발행하고 기관용 CBDC는 최종 결제 등을 지원하는 쪽의 연구·개발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급과 같은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의 2단계 시스템(two-tier system)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안정감이 있다. BIS도 이 방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은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테스트를 통해 한국에서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진다면 글로벌 모



•토큰(token): 버스 토큰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나 이전될 수 있는 증표다. 최근 들어선 주로 가상자산 등과 같이 프로그래밍 기능이 내재된 분산원장기술 플랫폼에서 발행·유통되는 전자 증표를 말한다.

•토큰화: 자산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플랫폼 상의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하는 프로세스. 토큰화를 하면 즉시성, 투명성, 자동화의 장점이 있다(OECD). 스마트계약을 통한 조건부 거래도 가능하다.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s): 은행이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분산원장 기술 등을 이용해 발행하는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 스마트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 혁신적인 지급 및 결제 서비스를 손쉽게 구현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기존 법정화폐 가치와 1대 1로 연동된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적어 디지털 결제 등에 쓸 수 있다.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DLT): CBDC의 발행·유통·환수 등에 있어 참가기관 및 개별 이용자의 CBDC 잔액 및 거래 정보를 기록하는 장부(ledger)가 여러 곳에 분산된다. 분산원장의 처리 속도는 현재로서는 기존 시스템에 비해 다소 느리지만 기술 발전으로 처리속도가 개선되고 있다.

•통합원장(unified ledger): 중앙집중형 단일원장 방식. BIS는 2023년 연차보고서에서 통합원장을 미래 화폐시스템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법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CBDC 도입 과정에서 은행 요구불 예금이 축소된다든지, 네이버페이 같은 민간의 결제시스템이 위축되지 않도록 잘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BDC는 지나치게 성공해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성공하지 못해 존재감이 아예 없어도 안 되는 알곳은 운명의 줄타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서경호 논설위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질로우 프러미어 에이전트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센터빌 싱글홈

\$985,000

방5, 화5, 차고2, 4500sf.
굿로케이션, Faircrest 커뮤니티
Upgraded 된 럭셔리 홈

알렉산드리아 싱글홈

\$680,000

방4, 화2, 조용한 동네
리모델,업그레이드함.
빅 섀론, 넓은 뒷마당

클리프턴 싱글홈

\$1,350,000

방6, 화장실4.5, 차고2
2003년산, 뉴키친 등등
업그레이 많이함.

우드브릿지 타운홈

\$400,000

방3, 화장실2.55
새 창문, 새지붕
굿로케이션

“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개런티 이자
/단기 (3년, 5년, 7년)
/복리 이자

유니티 보험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	5.30% \$430,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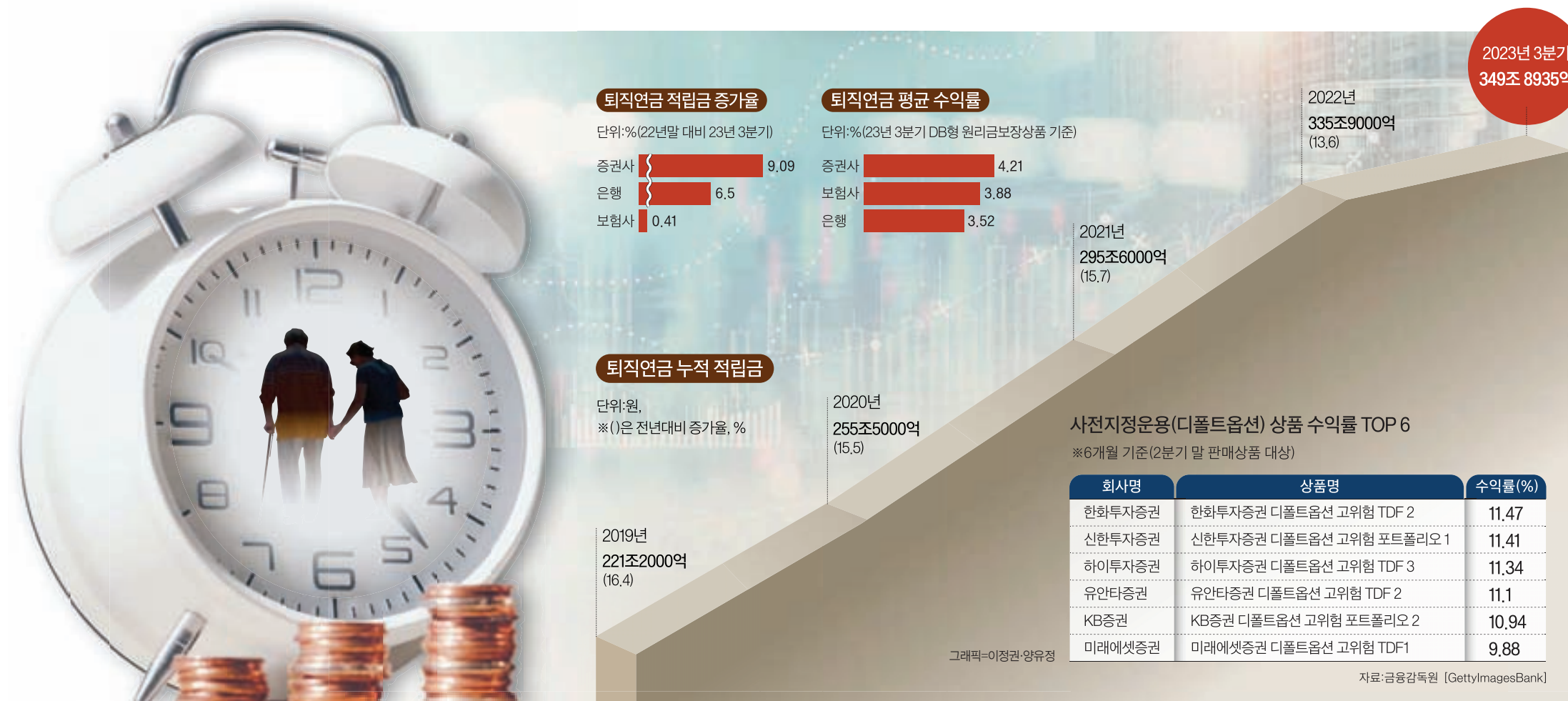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350조 퇴직연금 시장 요동, 수익 높은 증권사로 '머니 무브'

(자본 대이동)



350조원에 달하는 한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사전 지정 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앞세워 신규 자금을 유치하려는 증권사와 이를 수성하려는 은행권의 전략 경쟁이 펼쳐지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행·증권사·보험사)은 349조8935억원에 달한다. 업권별로 보면 여전히 은행 점유율이 52%로 압도적이지만 지난해 말 대비 적립금 증가율에서는 증권사가 약 9%로 은행(6.5%), 보험사(0.41%)를 크게 앞질렀다. 퇴직연금사업자 중 증권사 14곳의 적립금은 80조5570억원으로 지난해 말(73조8467억원)보다 9.0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은행의 적립금은 181조9257억원으로 지난해 말(170조8255억원) 대비 6.5% 증가에 그쳤다.

적립금 증가율 증권 9.1% vs 은행 6.5%
 퇴직연금 시장에서 후발주자였던 증권사로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디폴트옵션 시행 이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증권사 상품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별다른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더라도 미리 지정된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투자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연금 선진국에선 2000년대 초부터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연평균 6~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내에선 은행·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권사의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증권사의 3분기 원리금비보장(실적배당형) 기준 DC형 평균 수익률은 7.9%에 달했다. 증권사별로는 ▶삼성 9.23% ▶현대차 8.87% ▶유안타 8.71% ▶하이투자 8.67% ▶하나 8.62% ▶NH투자 8.2%로 8%대 수익률을 보였다. KB 7.82%, 대신 7.61%, 신한 7.19%, 한화투자 7.08%는 7%대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기업이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DB)형에서도 증권사 운용 수익률이 높았다. 올 3분기 원리금보장기준 DB형의 1년 평균 수익률은 증권사가 4.21%로 은행(3.52%)과 보험사(3.88%)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별로는 KB가 4.79%로 가장 높았고, 한국투자(4.58%)·대신(4.55%)·신한투자(4.47%)·하나(4.41%)·NH투자(4.38%)·삼성(4.31%)·미래에셋(4.25%)·신영(4.04%)의 평균 수익률이 은행권을 앞섰다.

증권사 운용 퇴직연금 상품은 높은 수익성과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업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8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에도 증권사 두 곳(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총 40개 사업자가 참여한

보장 DB형도 수익률 가장 높아 적립금 증가율, 은행 크게 앞질러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운용 역량과 수익률, 조직·서비스 역량 등을 평가해 상위 10%에 선정된 사업자를 우수 사업자로 선정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MP(Miraeasset Portfolio)구독 서비스'로 가입자 자산 관리의 편리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MP구독 서비스는 퇴직연금을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고객,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포트폴리오를 매수하기 원하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다. 가입자 연령과 투자성향에 맞춰 총 4가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최대 주식 비중이 20%부터 70%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주식 비중이 높을수록 기대수익과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올해 8월 말 기준 약 9000명의 가입자가 약 6500억원의 퇴직연금 자산을 MP서비스로 운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자산 운용전략 시스템 'K-ALM'(Asset-Liability Management)을 기반으로 기업별 맞춤 운용전략을 제시해 DB형 퇴직연금 운용성과를 크게 높였다. 운

용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운용 컨설팅(K-PIS) 제공, 중장기 적립금 운용 계획 수립, 상품 다변화 추진 등에 두루 기여했다는 평가다. 흥덕구 퇴직연금본부장은 "의무 도입된 디폴트옵션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DC-IRP 고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조직 전문성과 시스템을 지속 강화하며 퇴직연금 관련 서비스 품질을 높여갈 것"이라고 전했다.

퇴직예정자 연령대별 연금 강요도
 노후 대비를 위해 높은 성과를 원한다면 성장주 중심의 원리금비보장 상품에 주목할 만하다.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원리금비보장 기준 DC형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삼성증권은 미국 테크, 2차전지, 반도체 관련 ETF와 성장주 중심의 주식형 펀드 및 채권의 비중 확대 전략으로 가입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삼성증권은 가입자들이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현금성 자산 과다 보유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가입자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유휴화 삼성증권 연금본부장 상무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관리를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 좋은 상품, 선진화된 시스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금 가입자의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입자들의 노후설계와 금융투자

교육은 물론 연금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에도 열을 올린다. NH투자증권은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100세대자산관리클래스'를 열어 직장 세대가, 퇴직 예정자 등 연령대별 맞춤형 강의를 제공한다.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보험계리사, 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퇴직 전 준비하는 노후설계', '연금제도와 퇴직연금' 교육을 진행한다. DC형과 IRP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연금을 펼치는 신한투자증권은 영업점 내 연금관련 전문인력인 연금프로와 연금마스터를 선정해 연금고객 니즈에 맞는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인 '하나증권 퇴직연금 팝업오피스'를 열어 전직원을 퇴직연금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면 노후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KB증권은 퇴직연금 자산관리컨설팅 센터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주기적으로 현금성 자산관리, 만기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는 매월 발송되는 잔고 및 수익률 현황을 참고해 상품 재투자 시 전문 상담 및 수익률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KB증권은 지난해부터 고금리 시장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상품에 채권을 포함시킨 매대시즈

오유진 기자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융자에 맡겨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십니까?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하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FUNDING GROUP, INC.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CSB, Maryland State D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License Numbers: DC MLS# 1108695; MD 05-20828; NC L-161472; VA MC-5777; DE 030649; TX: PA 101075; WV ML-1108695; MB-1108695; GA 1108695; SC 11086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695 www.nmlsconsumeraccess.org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Diane Mun Lee)
 대표 / Principal Broker
 워싱턴 한인 부동산 협회 초대 회장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본사 사옥/한강식당 옆)

분양가 뛰는데, 어! 3기 신도시는 내렸네

(하남교산 59㎡ 4.8억 → 4.5억)

민간보다 착한 공공 분양가

서울 분양시장에서 변방으로 꼽히는 관악구에서 59㎡(이하 전용면적)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섰다. 2개월 전보다 무려 2억원가량 뛰었다. 중간남편으로 불리는 강동구에서 국민 평형인 84㎡가 1년 새 1억원 오르며 14억원을 넘어섰다. 수도권과 지방에서는 84㎡가 3.3㎡당 3000만원을 넘기며 12억원을 잇따라 돌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민간 아파트 분양 통계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전국 분양가가 3.3㎡당 1700만원으로 1년 전(1500만원)보다 13% 올랐다. 서울의 상승 폭은 더 커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19% 상승했다. 지방에선 부산이 18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0%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이 12% 내렸고 서울은 -10%, 부산은 -14%다.

이처럼 뛰는 분양가 뒤에는 공사비 급등이 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건축 관련 전자재·인건비 등이 많이 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 공사비가 최근 2년 새 12% 상승했다.

여기다 올해 초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대거 해제가 분양가 고삐를 풀어줬다. 서울 대부분과 경기도 과천·하남·광명·성남시 일부 지역이 상한제 규제를 받았으나 이 지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았다. 아파트값 상승 반전도 날개를 달아줬다. 집값 선행지표인 실거래가격이 2021년 말부터 줄곧 하락하다 올 들어 상승세로 돌아섰다.

새 아파트 수요는 늘었지만 신규 분

부동산?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민간과 공공의 엇박자가 두드러집니다. 이른바 '강남 3구'가 아닌 서울 관악구도 두 달 전보다 2억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민간 분양가 상승세가 예상롭지 않죠. 그런데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은 2년 새 3000만원 내렸습니다. 이렇게 민간과 공공이 거꾸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고 장단점도 있겠죠. 얼핏 보기에 혼란스러운 분양시장의 최신 동향을 짚어봤습니다.



내 돈 불리는 추천 콘텐츠

- 1 "추가분담금 90억? 내면 되지" 한강뷰 독자지한 압구정 그들
- 2 형제 몸값 2억까지 벌어졌다. '한 지붕 상아아파트' 속사정
- 3 공동명의 특례, 이젠 취소하라... 은마도 헬리오도 '중부세 0원'



땅값과 건축비 모두 올랐지만 상한제 분양가의 80% 이하 또는 주변 시세의 70% 이하 적용하고 집 디자인 단순하게해 비용 줄여



양 물량이 많지 않아 청약 경쟁이 치열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국 일반분양 물량이 6만8000가구로 예년의 절반 수준이다. 부동산114 집계로는 지난해 4분기 3.8대 1까지 내려간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이 올해 들어 지난 3분기 12.6대 1로 올라갔다. 김정아 내외주건 대표는 "집값은 상승 분위기인데다 분양 물량이 적어 새 아파트 희소 가치가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상한제가 풀리면서 강남 3구와 용산 다음으로 인기를 끄는 지역들에서 분양가가 뛰었다. 7월 광진구에 나온 롯데캐슬이스트폴이 3.3㎡당 4050만원으로 3년 전 인근에 분양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2980만원)보다 3.3㎡당 1000만원 넘게 올랐다.

서울에서 주거 선호도가 다소 떨어

지는 구로구와 관악구도 분양가가 꽤 올랐다.

8월 구로구 개봉5구역 재건축단지인 호반써밋개봉이 3.3㎡당 3000만원에 육박한 2914만원이었다. 84㎡ 대부분 10억원 정도였다. 지난달 나온 관악구 봉천4-1-2구역 재개발 단지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럴이 59㎡ 최고가가 9억6000만원이었다. 2개월 전 서울 대입구역 더하이브센트럴 59㎡ 최고가가 7억4000만원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분양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지난해 12월 수영구 남천자이가 3.3㎡당 30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9월 나온 해운대 더비치푸르지오 써밋은 3.3㎡당 327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 16일부터 서울 마곡과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등에서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됐다. 마곡 59㎡ 분양가는 3억1100만원이다.

이 단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토지임대부토지는 임대여서 건축비로만 분양가가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나온 고덕강일3단지 같은 주택형인 59㎡(3억5500만원)와 비교하면 4000만원 넘게 저렴하다. SH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이 작고 우수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형 건축비에 추가되는 가산비도 적다"고 설명했다.

하남교산 59㎡ 분양가는 4억5600만원이다. 2021년 12월 하남교산 59㎡ 첫 사전청약 분양가가 4억8700만원이었다. 땅값과 건축비가 올랐는데 분양가는 오히려 낮아졌다. 정부가 주변 시세의 70% 이하나 상한제 분양가의 80% 이하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는 이익공유형을 도입해 분양가를 1억원가량 낮

안정원기자



김봉렬의 공간과 공감

부활의 숲, 우드랜드 묘원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교외의 우드랜드 묘원은 죽은 자는 안식하고 남겨진 자는 치유한다는 '공원묘지'의 개념을 최초로 실현한 공동묘지다. 1940년 개장한 이 묘원은 화장장과 몇 개의 예배당, 그리고 10만여 기의 묘지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인공시설들은 축구장 160여 개 크기인 108ha의 거대한 숲과 초원에 숨겨진 채 산재해 있다. 이 숲은 추모객뿐 아니라 일반 시민과 관광

객도 한적하게 산책하고 평화롭게 쉬 수 있는 진정한 공원이 되었다. 전세계 공원묘지의 모델로 유명하고, 근대의 묘지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묘원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두 건축가, 에릭 군나르 아스플룬드와 시구르드 레베렌츠의 합작이다. 아스플룬드는 스톡홀름 공공미술관이라는 명작을, 레베렌츠는 보르크하겐의 성마가교회 등 영성깊은 작품들을 남겼

다. 이들 작품은 모두 세계적인 건축 명소로 남았다.

아스플룬드가 묘원 설계를 시작할 무렵 아들이 죽었고 완공 직전 그 자신도 죽어 이곳에 납골했다. 20세기 초 전설적인 여배우 그레타 가르보도 여기에 묻혔다.

3.6km 길이의 육중한 돌벽이 묘역을 감싸고, 입구부터 지극히 건축적인 길이 화장장과 3개의 예배당이 있는 본관으로 유도한다.



화장장은 정원까지 팔려 마치 아늑한 가정집 같고, 본관은 고전주의와 모더니즘이 융합되어 20세기판 신전과 같다. 초원에 선 십자가 뒤로 몇 그루 소나무 숲의 능선이 그림같이 펼쳐진다.

이 '명상의 언덕'에 오르면 울창한 숲을 비집고 아스라한 '일곱 우물의 오솔길'이 '부활의 예배당'으로 이어진다. 여기부터 본격적인 묘원이 시작되지만, 무성한 숲속에 여기저기 묘비들이 흩어져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물 같아 보인다.

묘원 전역의 디자인 개념은 '부활'이다. 북유럽 사람들에게 숲은 모든 생명의 탄생지이며 안식처다. 비록 낯설한 육신은 땅속에 매장했지만, 그들의 기억은 숲속에 남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건축가·한국예술종합학교 명예교수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시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 임플란트 Implant
- 응급환자 Emergency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 척추추진 치료, 맥켄지 치료
- 메이들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 신경발달치료
-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 근육 통증치료
- 관절 / 근육이완치료
-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철틀러 지역]

[예약한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1월 HOT 리스팅**

주택 매매 / SALE



**페어팩스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020년
코스코 부근 새 타운홈
\$89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타운홈**
방 3 + 화 3.5, 차고 1
1640sqft
넓은 타운홈, 올수리
\$600,000

주택 매매 / SALE



**센터빌
싱글홈**
방 5 + 화장실 2.5
2575sqft, 1983년
차고 2, 올수리된 집
\$675,000

주택 매매 / SALE



**싸우스라이딩
타운홈**
방 4 + 화장실 3.5
2283sqft, 2004년
차고 3
\$665,000

주택 매매 / SALE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3 + 화장실 2.2
1522sqft, 1989년
집 전체 마루
\$630,000

주택 매매 / SALE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 4 + 화장실 3.1
1702sqft, 1986년
넓은 엔드 유닛
\$650,000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히 관리해 드립니다!!

막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15년 연속 북버지니아협회 선정
다이아몬드 클럽 탑에이전트

브로커 비키리

NVAR Lifetime Top Producer
VA · MD · DC 브로커 면허소지

vikkilee@AmplusRealtyllc.com
www.AmplusRealtyllc.com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웅자 칼럼

좀 더 멀리 내다보자

국내외로 여러 불안정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움의 정점에 달한듯하다.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주식시장이 그렇고 올랐다가 내리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인듯 하다.

물가 또한 잡히는듯 하다가 다시 오르는 모양새이고 그러다가 또 다음달은 살짝 내리면서 잡히는 징조를 보이기도 한다.

고용시장은 또 어떠한가? 사상유례가 없을 정도의 탄탄한 고용시장은 이 모든 혼란스러움을 잠재우는 강력한 잣대로 해석되어왔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고용시장 또한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마냥 좋지만 한가? 이에 대한 반문이 커질수 밖에 없는게 현실인듯 하다. 이렇듯 경제지표 하나 발표될 때마다 그 해석이 매번 달라지기에 이같은 혼란스러움은 지속될수 밖에 없는듯하다. 이렇때

일수록 한발짝 뒤로 물러서서 더 멀리 그리고 더 큰 시각으로 한번 시장을 살펴보기를 당부드린다.

오늘 주식이 조금 올랐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며, 또 내일 주식이 또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자.

시장의 순간순간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 하지 마시길 바란다. 한발짝 뒤로 물러나서 조금 더 멀리 큰그림으로 바라보면 더 쉽게 깨닫게 되리라 생각한다. 상승하는 주식장에서도 주식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오르는 일은 없으며, 또 이자율이 계속 상승한다고 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하는 시장은 결코 있을수 없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근시안으로만 시장을 바라본다면 막연한 불안감과 기대감만 커지게 되서 결국 정확한 판단에 방해가 될뿐이다.

연준의 행보는 그동안 거침없이 금리인상에 무게를 실어 왔다. 다만 시장에서 그 해석을 이제 이만큼이면 충분



배준원 그린웨이펀딩 부사장

하겠지, 또 설마 여기서 더 인상해?라고 짧은 안목으로 판단하면서 잘못 해석 해온데 기인한거라고 본다. 이자율의 상승기조는 이미 장기적으로 천명된바 계속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급박하게 상승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짧은시간안에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다시 또 떨어지는 일이 올거라고 전망되진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바램과 전망을 혼동하지 않

는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가 기대된다. 바라건데 이자율이 다시 떨어지면 좋겠지만 당장 짧은 미래에 이뤄질 일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계획하기를 당부드린다.

최근 주택용자를 하는 많은 이들이 지금은 이자율이 높으니 우선 주택을 구입하고 곧 이자가 떨어지면 재용자를 해서 이자율을 낮추면 되니 그때까지만 어떻게든 참고 진행하자는 얘기를 종종 들곤 한다. 꽤 위험하고 어리석은 판단이다. 물론 이자율이 떨어지면 좋지만 지금은 그런 막연한 기대에 내가 가진걸 걸어야 할 때가 아니다. 지속적으로 이자율이 더 오른다고 해도 얼마나 더 오르겠나만은 최소한 지금의 고이자율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는 더 오래 갈것을 예상하고 대비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막연히 곧 다시 이자율이 떨어지면 재용자를 통해서 페이먼트를

낮추고 그 정도의 낮춰진 페이먼트면 괜찮겠지 하는 무리수는 피하길 당부드린다.

현재 이 이자율이 예상보다 더 오래도록 지속되더라도 이를 충분히 감당할수 있는 본인을 돌아보고 그에 맞춰 현실적인 플랜으로 대비하는 지극히 보수적인 접근을 요한다.

이정도면 더이상 오르지 않고 떨어질테니 내려갈거라고 막연히 기대하지 말고 지금보다 충분히 더 오를수 있음을 인지하길, 또 지금의 고이자율 예상보다 훨씬 오래 갈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그런 와중에 예상보다 이자율이 떨어지는 시점이 빨리 온다면 이는 감사할 일이지만 항상 최악을 대비하는 지혜가 지금같은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자세임을 명심하고 항상 대비하는 현명한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문의: 703-868-7147

부동산 이야기

주택가격이 급상승해 비싼데 거기다 이자까지 천정부지로 오르자 바이어들의 고민은 크다. 물가가 뛰면서 경기 침체로 부동산 마켓이 얼어붙고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믿어온 바이어들이 많은데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상당한 많은 바이어 중 2023년과 2024년은 부동산 하락과 더 나아가 폭락을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최소 20~30%는 빠질 거로 예상했는데 지금의 마켓 상황은 그것과 거리가 멀다. 심지어 살짝 높은 가격에 리스팅을 올리더라도 무난히 팔리고 있으며 매물의 컨디션이 좋은 경우 복수의 오퍼 경쟁이 붙어서 리스팅 가격보다 높게 팔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그리고 쏟아져 나올 줄 알았던 은행 차압 매물도 드문데 그나마 나온 매물도 컨디션도 좋지 않고 가격도 싸지 않

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자가 내릴 때를 기다리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쉽게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집값이 100만 달러라고 할 경우 20% 다운페이인 20만 달러를 넣고 80만 달러를 용자를 얻을 때 현재 이자 7.25%로 계산을 하면 모기지 페이먼트는 한 달에 5457달러다. 이때 만약 같은 상황에서 이자가 5.75%라고 가정하면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4668달러로 한 달에 789달러가 내려간다.

일 년이면 거의 1만 달러 가까운 돈을 더 은행에 더 내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있다. 이자가 현재에서 1%만 내려가도 부동산 시장은 다시 매우 뜨거워질 확률이 높다.

주택 구입 시기

그렇게 되면 현재 홀드하고 있는 가격들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게 되고 오퍼 경쟁도 다시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100만 달러였던 매물이 120만 달러로 오르고 대신 이자는 5.75%로 낮아졌다고 가정해보자. 마찬가지로 20% 다운페이를 할 경우 20만 달러가 아닌 4만 달러가 더 많은 24만 달러를 준비해야 하고 모기지 페이먼트는 월 5602달러가 돼서 결국 돈을 크게 절약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인타운 신규 아파트 경우 방 2개에 약 1000 스퀘어피트 유닛 임대료는 3500달러 수준이다. 여기에 강아지나 고양이 있다면 애완동물 디파짓과 렌트도 추가로 받고 주차도 한 달에 추가로 130~140달러 정도를 받는

다. 이 정도 수준이면 연봉 10만 달러 여도 저축하고 살기는 힘들다.

현재 마지막 분기로 접어선 시점에서 물가는 다행히 큰 위기는 넘기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올해 내 두 번 남은 연준 회의에서도 금리는 동결될 확률이 높고 추가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시각들도 적지 않다. 물론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고조되며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크레딧 카드빚들이 늘어나는 등 가계 부채가 높아지고 있는 위기 요소들도 한편으로는 주목해야 하겠다.

요즘 MZ세대들은 이렇게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면서 차라리 버거운 내 집 마련은 포기하고 대신에 취미, 여행들과 맛집들을 즐기며 경험 위주의 삶을 살고자 한다. 이것도 각자의 선택이기에 뭐라 할 수는 없겠으나 미래에 놓여있는 상황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렌트를 하든 주택을 사든, 살 집은 어쨌든 필요하며 가장 큰 소비와 지출을 차지하는 요인이다.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살 여력만 된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집값과 이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집 장만을 하루라도 서두르길 권하고 싶다.

그리고 내년이 되었던 내후년이든 이자가 내리면 그때 재용자로 낮은 이자로 재용자하는 것을 권한다. 그래서 집은 언제 사는 것이 좋은가. 그에 대한 정답은 준비되었을 때 지체하지 말라고 하겠다.

윤 김-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이트

▶1번 '욕실 리모델링'에서 이어집니다
제품은 최근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는데 물탱크와 변기가 분리된 있는 제품은 725달러, 일체형은 1025달러, 스마트 변기는 4000달러까지 한다.

▶세면대-조명
최신 세면대를 설치하면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욕실이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세면대 교체 시엔 세면대 밑에 수납공간도 함께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면대 업그레이드 시 배관 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개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명 교체도 욕실 분위기 변화에 도움을 주는데 최근 욕실 조명 트렌드는 벽걸이용 혹은 펜던트 조명이 각광받고 있다.

▶바닥재
바닥재를 교체하면 욕실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 리모델링 전문가들은 "목재나 석재 같은 값비싼 재료가 아니어도 방수 비닐이나 라미네이트 같은 내구성이 좋은 바닥재를 선택해 교체하면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색상은 화이트 또는 밝은 컬러를 선택하면 공간도 넓어 보이고 세련돼 보인다"고 조언했다. 또 욕실 바닥재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타일의 경우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이 출시돼 선택의 폭도 넓다.

이주현 객원기자

REALTY MARYLAND 리얼티 원 부동산 MONTGOMERY, HOWARD, ANNE ARUNDEL PRINCE GEORGE 카운티 전문

3450 Ellicott Center Dr. Suite 107, Ellicott City, MD 21043 / O: 410-696-2268 / F: 866-531-7541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주택매매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천 주택 리스팅 집매매, 렌트 놓으실때 "집을 예쁘게 단장 해 드립니다" 정직, 신용, 친절로 도와드리겠습니다

UNDER CONTRACT Columbia \$650,000 싱글홈, 방4, 화2.5, 차고2, 0.6 에이커 지하출입구 별도	SOLD Laurel \$599,900 타운홈, 방3, 화4	SOLD Ellicott City \$819,000 싱글홈, 방5, 화4, 차고2	SOLD Woodstock \$639,000 타운홈, 방3, 화2.5, 차고1, 3000sf	SOLD Hanover \$588,000 타운홈, 방4, 화4, 3024sqft
UNDER CONTRACT Hanover \$570,000 타운홈, 방3, 화2.5	UNDER CONTRACT Laurel \$547,000 2023 New Home, 방3, 화2.5, 차고2	UNDER CONTRACT Gaithersburg \$525,000 타운홈, 방3, 화3, 차고2	UNDER CONTRACT Hanover \$535,000 타운홈, 방4, 화3.5, 차고2 100번근처	SOLD Perry Hall \$450,000 타운홈, 방4, 화3.5, 차고1

Realtor 지니 최 301-318-4242 Jinny19619@yahoo.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altor 스테이시 양 443-668-0453 stacy4989@gmail.com *Multi-Million Dollar Producer

RENT 집 렌트하기 원하시는 분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NTED Silver Spring 월 \$2,700 타운홈 방3, 화장실2.5, 내부수리 완료	RENTED Ellicott City 월 \$2,600 방3, 화장실3.5, 센티니얼 하이스쿨	COMING SOON Germantown 월 \$2,400 타운홈 방3, 화4	COMING SOON Ellicott City 월 \$2,700 타운홈 방3, 화3.5, 지하출입구, End Unit	COMING SOON Silver Spring 월 \$3,000 타운홈 방2, 화3, 차고2	COMING SOON Odenton 월 \$2,500 타운홈 방3, 화3, 차고
--	--	---	---	---	--

租金 매니지먼트 해 드립니다.



정성웅 보험

사업체 보험



여기 한번 보세요!

보험료 절약의 기회!

정성웅 보험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 여러분 사업체에 꼭 알맞은 보험을 자신있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사업체 중그로서리, 미용실, 세탁소, 이발소, 컨비니언 스토어, 사진관, 옷가게, 홀세일(식품/잡화/도매) 등 ...

현재 보험료에서 더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보험

업무용 차량 보험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건축업, HVAC, 컨트렉터, 식당, 그로서리, 세탁소...
업무용 차량을 소유한 모든 사업체

**업무용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폭넓게 보상하는 보험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식당 보험료

같은 조건에 보험료 더 낼 이유 없다!!

업종	기존 보험료	할인된 보험료
식당	\$3,700	→ \$2,100
치킨가게	\$2,150	→ \$1,100
아침, 점심 델리	\$1,800	→ \$1,200
델리	\$1,300	→ \$700

더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면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위 표기된 금액은 실제 계약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703-825-2945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실 때,
영어 안내 목소리가 나오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저희 직원과 연결 됩니다.
항상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성웅 보험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체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아깝다! 손흥민... 오프사이드 판정에 날아간 9호골

첼시전서도 변함없는 킬러 본능
토트넘 1-4 첫 패배에도 평점 8점
11경기서 8골... 득점왕 재등극 주목
케인도 분데스리가 득점 1위 독주

프리미어리그(EPL) '최고의 콤비'로 활약하다 올 시즌을 앞두고 특별한 손흥민(31·토트넘 홋스퍼)과 해리 케인(30·바이에른 뮌헨)이 각각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손흥민-케인 듀오는 2015~16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한술밥을 먹었다. 이 기간 EPL 역대 최다인 47골(손흥민 24골, 케인 23골)을 합작했다. 영국 BBC로부터 리그 역사상 최고의 '골잡이 듀오'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손흥민-케인 듀오는 2023~24시즌을 앞두고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독일)으로 이적하면서 8시즌 만에 해체됐다. 단짝을 잃은 탓에 두 선수 모두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홀로 서기에 나선 손흥민과 케인의 득점력은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었다. 올 시즌이 중반부에 접어들어 손흥민은 EPL에서, 케인은 분데스



크리스티안 로메로(왼쪽 둘째)가 퇴장당한 탓에 골 찬스를 거의 잡지 못한 손흥민(왼쪽). 시즌 9호골을 놓쳤다. (로이터-연합뉴스)

리가에서 각각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나면서 측면 공격수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보직을 옮겼다. 결과는 대성공이다. 그는 EPL 11경기에서 8골을

터뜨려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다. 선두 엘링 홀란(맨체스터시티·11골)을 3골 차로 뒤쫓고 있다. 최근 기량도 상승세다. 9라운드 풀럼전과 10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전에서 잇따라 골맛을 봤다. 7일 11라운드 첼시와의 경기(1-4패)에선 골을 넣

지 못했지만, 날카로운 킬러 본능을 선보였다. 리그 3경기 연속골과 9호 골을 노렸던 손흥민은 전반 13분 골망을 흔들었지만, 비디오 판독(VAR) 끝에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골이 취소됐다.

이후 손흥민은 찬스를 거의 잡지 못했다.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전반 33분)와 데스티니 우도기(후반 10분)가 거친 태클로 잇따라 퇴장당하면서 토트넘은 수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개막 10경기 무패(8승2무)를 달리던 리그 2위 토트넘은 시즌 첫 패배 기록했다. 풋볼러들은 홀로 분전한 손흥민의 활약을 인정해 평점 8점을 줬다. 헤트트릭을 기록한 첼시의 니콜라 잭슨도 8점이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의 활약을 두고 "골이나 다름없었다. 다만 운이 없었다"며 후한 점수인 7점을 줬다. 현재 손흥민의 득점 페이스라면 득점왕에 올랐던 2021~22시즌의 23골을 넘어설 수 있다. 특히 그는 몰아치기에 능한 편이다. 4라운드 번리전에서 이미 헤트트릭을 작성했다.

세 차례 EPL 득점왕을 차지한 케인은 독일 분데스리가 데뷔 시즌부터 골 폭풍을 몰아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리그 10라운드 도르트문트전(4-0승)에서 헤트트릭을 작성했다. 올 시즌 별

써 3번째 헤트트릭이다. 10경기에서 15골을 기록한 케인은 당연히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케인은 데뷔 첫 시즌 10경기에서 15골을 터뜨리면서 이 부문 분데스리가 신기록을 세웠다. 종전 최다인 1963~64시즌 클라우스 마티야크의 13골이었다. 분데스리가 시즌 중 10경기에서 15골을 넣은 건 1968~69시즌의 '폭격기' 게르트 뮐러와 올 시즌 케인 등 2명 뿐이다.

케인은 또 7일 현재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 세리에 A(이탈리아)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인테르난)는 12골(11경기), EPL의 홀란은 11골(11경기), 프리메라리가(스페인) 주드 벨링엄(레알 마드리드)은 10골(11경기), 리그1(프랑스) 킬리안 음바페(파리생제르맹)는 10골(10경기)을 기록 중이다. 케인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51골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992년 EPL 출범 이후 유럽 5대 리그 최다골 기록을 세울 수도 있다. 한 시즌 리그 50득점 기록은 딱 한번 나왔다.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2011~22시즌 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50골을 넣었다.

피주영 기자

지구는 광증을 퍼트리는 곰팡이에 점령당했다. 인간들은 습하고 어두운 지하 도시로 쫓겨나 쓰레기 죽을 먹으며 살아간다. '파견자'는 지상으로 올라가 지구를 탐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특별한 이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다.

MZ 세대가 사랑하는 소설가, 김초엽(30)의 두 번째 장편 『파견자들』(퍼블리온)이 최근 출간됐다. 정체불명의 곰팡이가 지구를 집어삼킨다는 설정의 디스토피아 SF소설이다. 'SF 스타'라는 수식어를 증명하듯 출간 직후 대형 서점들의 소설 부문 판매량 톱5에 이름을 올렸다. 김초엽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지난 1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작보다 역동적인 분위기다.
"좀 더 대중적으로 읽히길 바랐다. 전작은 정적인 가운데 감정이 일렁이는 작품이었다면, 이번에는 파견자를 비롯한 캐릭터들이 적극적으로 매력을 발산하길 원했다."
-분위기를 바꾸는 게 힘들진 않았나.
"회사원처럼 매일 공유 오피스로

곰팡이 세상, 인간은 지하로

김초엽의 디스토피아 지구

김초엽 신작 『파견자들』은 전작보다 대중적인 색채가 강하다. 곰팡이가 점령한 세상에서 분투하는 인간들을 그렸다. 김성룡 기자

출근해 소설 작업 책을 읽었다. 늘어난 장면들을 채내고 인물이 더 매력적이도록 여러 장치를 고안했다. 예전 작품들과 비교해 덜 학구적이다."
-곰팡이로 뒤덮인 지구는 어떻게 나온 발상인가.
"첫 시작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환상의 버섯'이었다. 버섯은 곰팡이의 일종인데, 생태계에 여러 이로운 역할을 한다. 과학책 『작은 것들이 만든 거대한 세계』를 읽으면서 도움도 받았다.

곰팡이가 태초의 지구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인간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로 읽힌다.
"구준히 해왔던 이야기다. 『지구 끝의 온실』이 덩굴식물의 힘에 관한 이야기라면, 『파견자들』은 곰팡이의 힘에 관한 얘기랄까."
-명문대 출신 인기 작가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 같다.
"굴곡 없이 잘 풀린 케이스로 보이

겠지만 그렇지 않다. 빈곤을 경험했고 장애가 있다. (김초엽은 10대에 3급 청각 장애 판정을 받았다) 내 작품이 잘 되더라도 항상 거리를 두고 보려고 한다. 세상을 보는 시각에도 그런 성향이 드러나지 않나 싶다."
-따뜻한 시선도 느껴진다. 낙관주의자인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필까' 늘 궁금했다. 닳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런 면과 본래의 냉소적인 면이 섞여 희망을 한 스푼 넣은 디스토피아 소설이 나오는 것 같다."

-SF소설이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
"SF를 감상하는 문화적 역량이 축적됐다고 본다. 해외 SF 영화가 국내에서 여러 차례 흥행하다 보니 좋은 SF를 골라내는 감식안이 생긴 것 같다."
-한국 SF만의 특징이 있다면.
"다른 나라 SF 소설보다 좀 더 현실 밀착적인 것 같다. 아주 은유적이거나, 멀리 가는 이야기보다 현실과 가상의 비중을 50대 50 정도로 가져가는 소설이 더 인기가 많아 보인다.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현실적인 성향이 강해 그런 게 아닐까."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공존은 어렵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곰팡이 세상에 폭 빠져서 읽어주면 좋겠다."
홍지유 기자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0%	0.0%	51.9%	42.9%	2.3%	0.0%
매우중증	중증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적,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복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Sciatica 좌골신경통

엄지

손가락 쥐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뭉치

발목 뭉치

오래된 것 쉽게 해결됨

plantar aches

뒤꿈치

발바닥 통증

힘이 없어 집지 못함

뺑아쇠

피지지 않음

구부리기 힘들다

75°

30°

오래 앉아있지 못함

허리 누우면 통증

엎드리면 통증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일수금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화목토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Marcy: Dinner is almost ready!
마시: 저녁 준비 거의 끝났다!
Nick: Great! I'm really hungry!
닉: 정말 배고파요!
Will: Me too.
윌: 저도요.
Marcy: Set the table will you boys?
마시: 식탁 차려야지 알았지 애들아?
Nick: Sure.

닉: 예.
Will: I could eat a horse.
윌: 배고파 죽겠어요.
Marcy: Didn't you eat lunch at school?
마시: 학교에서 점심 안 먹었니?
Will: I wasn't hungry then.
윌: 그땐 배가 안 고팠어요.
Marcy: Be careful now because the soup is piping hot.

set the table; 식탁을 차리다

(Marcy and her sons are about to have dinner~)
(마시와 아들들이 막 저녁을 먹으려 한다~)

마시: 숟이 팔필 끓으니까 조심해라.
Nick: After dinner let's clear the table and play Scrabble.
닉: 저녁 먹으면 식탁 치우고 스크래블 게임(일종의 끝말잇기 게임) 하자.
.....
기억할만한 표현
▶ I could eat a horse: 말이라도 먹겠어. 위가 등에 붙었어. 배고파 죽겠어.

"I didn't eat all day yesterday. I could eat a horse."
(어제 하루 종일 아무 것도 못 먹었어. 배고파 죽겠어.)
▶ The soup is piping hot: 굉장히 뜨겁다.
"The coffee is piping hot so let it cool first."
(커피가 굉장히 뜨거우니까 먼저 식혀야 돼.)
▶ clear the table: 식탁을 치우다.
"We have to clear the table before we play poker."
(포커 치기 전에 식탁을 치워야지.)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가로열쇠

(2)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임시로 머무르고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4)떡 등 음식물이 오래 되면 이것이 피어 못 먹게 되죠 (6)가족이나 가금 따위의 사육,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 (8)구들을 놓아 난방 장치를 한 방 (9)가르침을 받은 은혜로운 스승 (10)항문으로부터의 배설물 (12)흥을 풀을 때 하는 말 (14)도장밥 (16)초식 동물의 발 끝에 있는 크고 단단한 발톱 (18)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 느낌 (20)떨어지거나 파낸 자리. 깎을수록 커지는 것 (22)잘 때 덮고 자죠 (24)마소를 먹이기 위하여 말려서 썬 짚이나 마른풀 (26)값을 깎는 일 (28)가혹하게 비평함 (30)등잔, 초의 불을 붙이는 부분 (32)레이더의 유도에 따라 목표물을 찾아가 폭발하는 무기 (33)일이나 물건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고르치는 일 (35)야외에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조금 떼어 던지는 일 (36)온갖 조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하는 구슬

세로 열쇠

(1)집에서 기르는 짐승 (2)산이나 들에서 채취한 식물 또는 채소로 만든 반찬 (3)밤의 길거리물 울긋불긋 반짝반짝 장식하죠 (4)짧은 담뱃대 (5)어머니의 자매 (7)산과 물이 어우러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린 그림 (11)앞머리와 옆머리를 깎아 내고 남은 머리를 뒤로 뺏아 늘인 것 (12)협한 산길에서 바위 같은 것에 등을 대고 겨우 돌아가게 된 곳. ↔안들이 (13)반들반들한 잔돌 (15)달음질하는 개. 남의 끈나풀 노릇을 하는 사람 (17)장판과 접해 있는 벽의 아랫부분 (19)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 (21)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 (23)미혹되지 아니함. 마흔 살을 달리 이르는 말 (25)사물과 마음이 구분 없이 하나의 근본으로 통합됨 (27)술 바닥에 늘어붙은 밥 (29)곡식을 되질할 때 평평하게 밀어 고르게 하는 데 쓰는 방망이 (31)귀중품을 넣어 두는 껍 (33)남에게 불행이 일어나도록 비는 일. 시카고 컵스는 염소의 ~를 풀고 108년 만에 우승을 하였다 (34)열차는 이 길 위를 달리죠

스도쿠

			3	4		8		
						6	1	
4				5				
	7		2			1	3	
			5	7	4			
	9	8			3		2	
				9				2
	4	5						
		1		6	7			



자료제공 = 울드독 (www.gobook2.com)



문제풀이 스토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8	6	5	2	9	4	1	3	7
1	9	2	7	3	8	5	4	6
2	4	3	6	1	2	9	8	7
2	7	4	3	1	9	8	6	5
9	8	6	4	2	5	3	7	1
5	3	1	6	8	7	4	2	9
3	2	7	1	5	6	9	8	4
4	1	9	8	7	2	6	5	3
6	5	8	9	4	3	7	1	2

①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month year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3일 후부터 배달되며 3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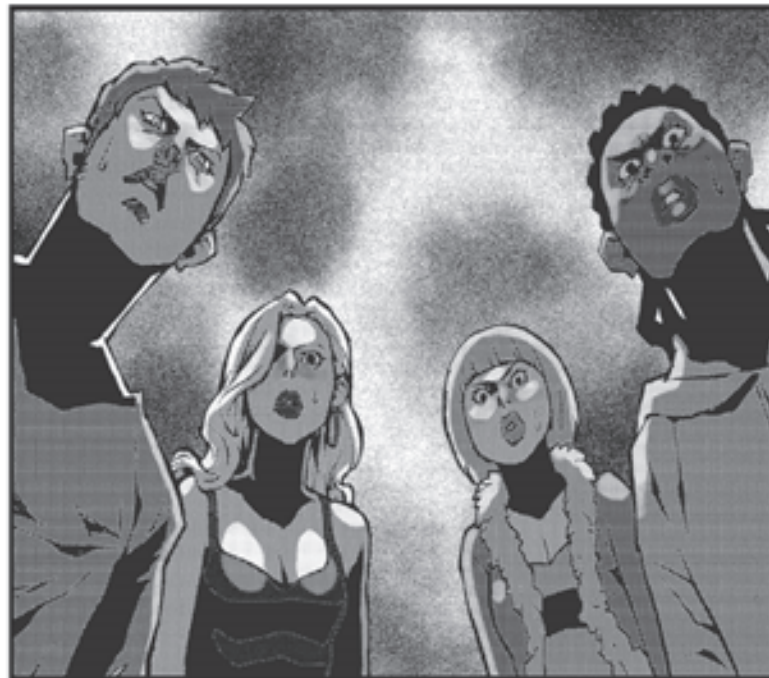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희생**

이상신 · 국종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메가썬킹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정통 모피의 명가 **대호모피**

사은특별 대세일 **65~75%**

풀스킨 밍크

- 풀스킨 밍크 하프조끼 ~~\$7,190~~ **\$1,490**
- 풀스킨 밍크 7부조끼 ~~\$8,900~~ **\$1,690**
- 풀스킨 밍크 하프코트 ~~\$11,900~~ **\$2,490**
- 풀스킨 밍크 롱코트 ~~\$13,000~~ **\$3,690**



2024년 시즌을 맞이하여 '사은품' 증정 대 세일을 실시합니다.
 새로움을 선보이는 **신개념 모피**로써
 다양한 칼라, 앞서가는 디자인으로 **신상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최상의 '사은품'도 받아가세요.

신개념 패션 밍크



- 패션밍크 후드 양면 7부코트 ~~\$7,290~~ **\$1,490**
- 패션밍크 8부조끼 ~~\$5,980~~ **\$1,200**
- 패션밍크 칼라자켓 ~~\$5,800~~ **\$980**
- 패션밍크&실버폭스 조끼 ~~\$4,290~~ **\$490**
- 폭스&구스 칼라자켓 ~~\$3,890~~ **\$490**



사은품 이벤트

- 3000불 이상 구매시, 패션밍크 조끼
- 2000불 이상 구매시, 친칠라칼라 대형목도리
- 1000불 이상 구매시, 여우목도리



센터빌 행사장

2023년 11월 6일 ~ 13일

장소 : **COCO 코코** 센터빌매장 (H-Mart 옆)

주소 : 138-26C Braddock Rd.
 Centreville, VA 20121
 시간 :오전 11시~ 오후 7시
 Sun. : 1시~ 6시
 전화번호 : 703-609-8324
 718-578-3911

11월
구
인
광
고

소자본 비즈니스 하실분

시대에 맞추어 살론 몰에서
살론 비즈니스를 소자본으로 운영하실 분 찾습니다!

Edge

넉넉한 장소안에 개인용 살론 부스를 마련, 1~2명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제공되며
각방의 개인 열쇠와 입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살론 공간은 원하는 대로 배치와 설치, 페인트 색도 바꿀 수 있습니다.

-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위치 (리치몬드 하이웨이 선상)
- 무료 주차 공간 및 고속도로 소비자 지역
-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잘 꾸민 욕실/복도/응접실 완비!
(고객들이 편하게 기다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 주당 \$325(유포) / 청소는 각자 / 보증금 \$2,000 환불가능!

총 \$3,000 미만으로 자영업을 신속하게 개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문의 **703-867-5919** www.EdgeSalonStudios.com

MART Companies 직원모집

모집부서 인사, 영업, 행정, 시설관리, 물류센터

위치 Herndon, VA
Upper Marlboro, MD

자격요건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베네핏 401K, 회사 리조트, 스폰서쉽
보험, 유급휴가 / 병가,
Smart Card, Life Insurance 등

지원방법 이메일

- 이력서 : aaron.kim@hmart.com
- 문 의 : 240-546-0600 ext 222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티어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슈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집합니다

- 정육부 1명/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단골 손님 500여 명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장비 10여 만불 보유

영업시간 : 9am ~ 4pm (5½day)
Rent/월 : \$2,000 (면적 3,000 sf.)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 모집 분야: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 자격: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 근무 혜택: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일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양생활안내 Classified

중양일보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Accountant: Manage daily operations of ledgers such as payroll, billings, accounts payable & receivable, project cost allocations; Use accounting programs such as Quickbooks, Yardi, and Moraware;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Draft audit reports. 40 hrs/week. Master in accounting or finance req'd. Send application to Employer & Job Location: Petra Stone Inc at 2926 Prosperity Ave, Fairfax, VA 22031.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hr@worldbankcard.net ▶703-333-31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집니다.

*신입 환영/경력자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스폰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케어피플 홈헬스 오피스 풀타임 직원모집

센터빌 HR 부서/ 애난데일 Billing 부서 각 1명(컴퓨터, 영어 필수)
▶이력서 : carepeopleinfo@gmail.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급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디 / 코닥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4대 보험 전액 지원
-자율적인 근무시간
-DMV 지역 (DC, MD, 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WBS에서 직원 모집합니다.

Credit Card Terminals, POS 경험자. 업계 최고 대우, 유급휴가, 건강보험. 문의 및 resume:
▶info@worldbankcard.net.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아난데일 부동산회사-리셉서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경험필수
-3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세밀함/성실함
-100%Medical/Dental/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타이슨스 코너 밀에 위치한 시계 및 주얼리 리퍼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분

구합니다. 파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분
luvacct1986@gmail.com

유 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 하실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중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중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a@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저희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투어구인

매장 스태프, 매장 관리 풀타임, 파트타임 시간 조절 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텍스트)

Seeking Full Time / P&C Licensed & Experienced

-Assistant Manager
-\$70,000/yr
-Paid Vacation & Retirement Plan
Requested contact from Eligible candidates only:
joshuaoh123@gmail.com
703-973-5900

공인회계 사무실 구인

Full & Part time 직원 구함
Benefit 있음.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텍스 시즌,

토요일 근무 가능한 파타임 인턴 모집.
무경험 ok. \$13-15/h. 간단한 이력서
cpaoffice1212@gmail.com

보험회사 직원 구인 (Annandale)

- Full / part time - 컴퓨터/영어필수
- 유급휴가, 은퇴연금, 월-금
연락처 gpark@withcornerstone.com
301-237-8782

애난데일/센터빌 회계사무실

CPA 또는 EA 자격 우대/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yicompany.com
문의: (703)345-9594 Financial services

NEST Energy LED Sales (영업) 사원 구함.

성실히 함께 하실분 환영. 최고의 우대
시장 전망 높은 성장가도를 달리는 시장.
E-mail: nestenergy@yahoo.com
Mob. (703) 855 - 3565
Ph. (703) 712-7162

페어팩스 지역 AGM 사무직/풀타임

쾌적한 사무실 환경/주 5일 근무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우대
- MS Office (Word, Excel 사용가능자)
- 각종혜택 401(k) PSP & Group Benefit
- Paid Holidays & Vacations
- 영문 이력서 / HR@agminstitute.org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서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 페이스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급, 센터빌/첼렌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ntru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서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 오피스 구인

프론트일 하실 성실하신분 구합니다.
영어 한국어 모두 구사 가능하신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Computer skills are required
근무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AM to 5PM
resume: slim@gastrohealth.com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rc@gmail.com

병원에서 일 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 / 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 Medical Insurance
*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페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휴선 (10 AM-4 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서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 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트레이닝,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에서 영어, 한국어,

컴퓨터 가능하신 리셉서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703.505.0204

메일랜드

세라믹 빌드업 기사 구함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직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 경력직 리셉션 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 오피스에서 오래 일 하실 분

락빌/콜롬비아/센터빌
파트타임, 풀타임, 이중언어
301-580-5777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센터빌, 첼렌리 물리치료병원

Receptionist / 한국어, 영어 필요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치주 임플란트 전문 치과병원

풀/파트 어시스턴트 1명/리셉션 1명
경력직 우대/ 초보자 교육가능
이메일: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식당/제과/델리/식품〉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Host / Hostess (한국어 / 영어)
14215-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703-517-6439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직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 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일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호스트/호스텔 월-일 저녁
(저녁 5:00PM 시작)
-Server 월-금 5일 점심
(점심 11:30AM-3:30PM)
시간당 \$20불 보장
▶703-517-6439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험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TAXI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571-246-1942

한식 식당
동업자 구함
애난데일 중심지 한식당
한식 주방 경험자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문의
202-553-8551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SHADY GROVE
BARBER & BEAUTY
구인
게이더스버그
남/여 머리하시는 분
모십니다!
9049 Gaither Rd.
Gaithersburg, MD 20877
301-926-3638
301-538-4246(Soo)

성업중인
당구 스포츠 바
• 성업중인 미국 당구장 매매 또는 리스
•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8
703-244-345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구직) 허바치쉐프 파트타임 가능
443-620-4420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분
영주권 스폰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703-473-6022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열도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트·루트원 선상
703-501-3335

버지니아 스프링필드 막창도둑
코리아 BBQ 레스토랑
서버 (파트타임, 풀타임) 매니저 구함
443-953-1127

첼트리 Cafe Moment에서
금토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703-376-8090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 파트타임, 풀타임
703-717-2596

아침 캐시어 구합니다. 높은페이, 시간 조절.
443-621-4951

스프링필드 버지니아 막창도둑
코리아 BBQ 서버 매니저 구합니다.
443-953-1127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델리에서 점심시간 도와주실분
타이슨스 코너지역
703-867-9374

오피스텔 그릴샌드위치 싸실분 경험자 우대.
풀타임 (07:00-15:00)
위치: 스프링필드 매트루옴 오피스단지
703-740-7344

캐리아웃에서 함께 일하실 분 센터빌에서
가까움, 유/무 경험자, 파트/풀타임
703-955-6962

첼트리 소재 일식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하실
스시맨, 스시보조 파트타임 구함.
센터빌, 첼트리, 현돈 거주하시는 분 환영.
703-980-3076

센터빌 중식당 서버구함
풀/파트 타임 시간조정 가능
703-300-7218

오피스 텔리에서 일하실 분
베데스다 전철역 부근 7AM~3:30 PM
301-785-4706

첼트리 지역 식당 캐시어 구함
\$15 / Hour 수, 목, 금, 토, 일 (5월 11 - 8:30)
703-341-7912

애난데일 누리치킨에서
주말에 일하실 직원 구함. 학생환영
703-989-9828

센터빌 지역, 베이커리에서 제빵사와
홀에서 일하실분. 주말 알바, 주중 알바
풀타임, 파트타임 모두 가능
703-414-9000

락빌 정부건물안 카페, 월-금
그릴 샌드위치 할일분 6:30am-3:00pm
703-395-4380

볼티모어 한아름에서 가까운 캐리아웃에서
아침에 캐시어 보실분 구함. 시간조정가능
19블. 캐트스빌에서 10분거리
443-621-4951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하실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571-215-6767(자세한 사항 문자, 메세지)

애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할일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세지 남겨주세요)

마사지, 지압할일분을 구합니다.
571-237-341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커미션이나
부스렌트 원하시는 미용사 구합니다.
정확한 위치와 자세한 내용 전화/문자 요청
571-215-6757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룰 렌트 할.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첼트리에 있는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커미션 개인 비즈니스 원하는 미용사 구함.
(메세지 남겨주세요)
571-215-6767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세탁/얼터레이션>

픽업 스토어 카운터, 열도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 스테포트, Rt.1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할일분
파트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할일분
연락처: 703-300-4959

엘리콧시티 픽업스톨어
바느질하는 분. 9-6 목금토.
410-926-3200

Alteration 할일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페어팩스 지역 세탁소
올터레이션 & 캐시어, 재직 프레스서 구함
301-404-0701

셔츠, 바지 다리실분 주3일
Upper marlboro (largo) MD
703-850-3714

세탁소 카운터. Stafford VA 파트 or 풀타임
703-618-9872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할일분
풀스쳐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할일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할일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 (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 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EV Electric Co.
차, 베네핏,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테이커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탐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콧시티, 메릴랜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 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 첼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할일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 할일분 파트타임 남여1명
장소 칼레지팍 MD 경험자 우대
703-725-1233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달리버리 할일분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에쉬번 지역 10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 봐 주실분.
571-438-1402

메릴랜드에서 입주해서 아이 셋과
가사일 도와주실분 구함. 운전 필수
연락처 301-257-1787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어시스트 리빙 노인분들 케어 해주실 분,
경험자 우대. 숙식할일분.
410-961-3012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달리버리 할일분을 모집합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703-505-5211

에쉬번 지역 9개월 아기
일주일에 2일 봐 주실분.
571-438-140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터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애난데일 콘도. 방2, 화1, 엘리베이터,
남향집, 밝고 환한 집,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1,850
▶703-477-3114

우드브릿지타운홈, 방3, 화2½,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2,500
▶703-477-3114

매나사스타운홈, 방3, 화장실2½,
1 Car Gagage, End Unit, 나무마루,
Costco 1분 거리, 교통편리. \$2,500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 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링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치킨과 세탁장
-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 Serious Inquiries Only
* Agent 환영
▶703-244-3453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타운하우스,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소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팩스타운홈 \$3,000. 방3 화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 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 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에쉬번 방 4개 화 3개 벽돌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드메트로 옆타운홈 \$2,850
방3, 화 2 1/2, 차고 2, 새 부엌,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703-489-6926

게인스빌타운홈, 방 3, 화 4, 1952sqft,
2 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

센터빌 마트 2~3분거리, 타운 홈
방 4, 화장실 4, 차고 2
571-882-4473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방3, 화2, \$1900
New paint, dishwasher, range,
air conditioner, 즉시 입주 가능
646-419-0022

<콘도 렌트>

Alexandria 다운타운 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매나사스타운홈, 방3, 화3½, 리모델 부엌,
화장실, 3개층 모두 나무마루, Costco와
Walmart 가까운 동네. \$2,400
▶703-477-3114

생활안내 703-281-9660, 1(문자)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고춧가루 팡니다!

직접 농사지는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보통맛 · 매운맛

703-470-5238

Crabs 10월부터 알베기 판매

식당 동업자구함

주방장 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한 자

Crabs wholesale MD·VA
202-553-8551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달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junk282.com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보내실곳 : kdclass2018@gmail.com (게재증지를 원하실경우 이메일 주시기바랍니다.)

C15

콘도 렌트. 방3, 화장, 애난데일 H-Mart 옆 11월 15일 입주가능. (유포 \$2,300/전기 별도) 703-350-1986

애난데일 H마트입구 콘도렌트 방1, 욕실1, 발코니, 파킹2 11월초 입주가능,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문의 요함)

10월 1일/초순경 ANNANDALE의 콘도 같이 입주할 분(남녀독신 불문). 비흡연자/비음주자/비마약자 선호. 직장인/자영업자/은퇴자 환영. 본인: 전문직 종사자임. 571-390-3989(문자로만 연락바람)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렌트 ▶703-470-5238

애난데일 홈디포뒤 방1 렌트 출입문 별도, 주차장 있음 571-237-3411

버크 위층방 세놓음, 학생환영, 금연자, 화장실 별도, 간단취사 가능, 인터넷 포함 703-919-7660

스프링필드 타운홈 지하 전체 방, 풀베스, 주방, 밝은 거실, 출입문 별도 조용하고 교통 매우 좋음. 여자분 환영 (571) 246-7988

첼트리 롯데근처 타운홈반지하 워크아웃 출입문 별도 취사가능, 가구완비 직장인이나 학생환영 메세지요망 571-429-2222

애난데일 H마트 옆 싱글하우스 출입문 별도, 아래층 전체 방2, 거실, 주방, 화장실 1, 세탁실 703-350-2690 / 문자:703- 350-2853

싱글홈 방1 렌트,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가구완비/인터넷(유포) 301-655-3248

셜락가든 근처, 잠만 주무실분 방1, 화장실 1, 금연자 571-243-6295

실버스프링, 넓고 조용한 싱글홈 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

지하방 깨끗한 집 즉시 입주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

즉시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페어팩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 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타운홈 지하 방. 화장실, 샤워룸, 리빙룸, 키친 세탁룸, 단독 아파트 처럼 사용가능 페어팩 Walmart 근처 문의 : 571 217-2224(Mr Kim)

원룸 스타일, 욕실, 키친, 침대, 책상, 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예촌양 2층 방 2개, 워크아웃 1개 772-529-8675

버크 윌타도 도로 5분. 깨끗하고 환한 타운하우스 1층, 방1, 화1, (냉장고, 세탁기, 전자렌지, 싱크, 옷장, 식탁) 워크아웃, 주차 가능. 여성분(학생 환영) 202-505-0678

495,395 5분거리 교통 편리한 스프링필드 지하방 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세지 부탁합니다

애난데일 싱글 아래층, 노바, GMU, 495, 6분 침대 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넓고 조용한 단독주택 아래층. 출입문 별도 간단한 취사가능, 넓은 방, 거실, 주방, 실버스프링 한아름, 롯데 10분거리 240-543-6427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뒷층방,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private bathroom) 여자분 환영. 문자 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

센터빌 싱글지하 방2, 거실, 조용, 주방, 세탁, 출입문 별도, 주차, 즉시입주, 남학생, 직장인 환영 703-336-7631

단독주택 2층방/주차가능/인터넷/가구완비/냉장고/냉장고/여자분 환영/ MD Burtonsville, 29번과 198번 만나는지점 240-413-2728

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1, 욕실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환영), 도보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

버크스테이션, 방1, 화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Walmart 근접. (여자분, 학생 환영) 202-505-0678

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 출입 방2, 욕실, 주방, 거실, GMU, NOVA 10분, 2인사용 가능 703-887-8968(문자)

지하전체 간단취사 가능. 주차, 인터넷, 유포, GMU 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

애난데일 조용한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 큰방. 풀 베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

메릴랜드 그린벨트 나사 근처 조용하며 교통편리, 작은 방 \$350 301-379-96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방 렌트 495/395 5분거리 703-750-2795

페어팩스 몰 근처 싱글홈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 mr. 권

395,495 2분거리, 백클릭 근처 타운하우스 1, 2층 전부 렌트 가능. 아님 2층 화장실 딸린 방하고 리모델링한 지하 각각 렌트 가능. 취사 가능. 703-403-8918 (Lee)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5분, 조지메이슨 5분 남학생 환영. 문자만 가능. 571-554-4224

페어팩스 지역 도로 3분거리 GMU 대학교 근처 밝고 넓은 거실 방1 워크아웃, 여자분 환영 347-421-7894

페어팩스 지역 조지메이슨 대학교 걸어서 3분거리 웃층방 1개 화장실 주차편리 조용한 여자분 환영 347-421-7894

센터빌 조용한 싱글홈 렌트 작은방 1 화장실 1 학생 &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환영 703-909-1609

센터빌 CVS 근처, 지하 전체 렌트, 새 카펫, 화장실, 키친, 간단식사, 출입문 별도 유포. 문자 571-243-7027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 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싱글/타운/콘도 매매〉

매나사스 새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End Unit, 2006년 새단지, 방3, 화2½, Corian Counter tops, SS Appliances, Community(Playground, Basketball, Pool and Gazebo), Bay window, \$474,900 ▶703-477-3114

덤프리 타운하우스, 2016년 새단지 새 집, 1 Car Garage, 방3, 화2½, 탁트인 구조, Granite Counter tops, SS Appliances, 나무 보이는 넓은 Deck. \$399,900 ▶703-477-3114

센터빌 타운하우스 3Level, 방2, 화장실 2½, 편안하게 Up Grade 된 예쁜 타운 하우스, 새 나무마루, Updated Kitchen, Updated Basement, Yard Fenced Back, \$450,000 ▶703-477-3114

찾기 힘든 독점 리스팅 오픈 하우스 10/28-29 (토, 일) 오후 1-3 교 통 좋고 예쁘게 잘 관리된 3레벨 싱글 하우스. 비엔나, 옥튼 고등. 방 5, 화 4.5 (1.225 M) 문의: 703-850-3638 (성함과 텍스트 남겨 주세요)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렐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방구대 원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 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 다양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 것 포함) (10년간 렌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입니다 ▶571-421-0863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 단골 손님 500여명 - 타이어 1분 판매 65% 마진 - 장비 10여 만불 보유 *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 ½ day) * Rent/월: \$2,000 (면적 3,000 sf.) ▶문의 전화: 202-258-6384

Pick up 매매 주인은 Good location. 엘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 \$780,000. 6일. 용자. 부부운영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바람)

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 \$2,700(캠포함) 좋은 지역 & 매상 해마다 오르는 중 571-314-1433

애난데일 마트 안 한층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 424 6451

버지니아에 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볼티모어 머니먼트 근처에 컨비니언 스토어 남자 혼자 운영 월-토 9-5 순수입 월 \$3,600 / 매매 6만 / 스탁 8천 443-472-8820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멘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바람. 703-582-8689

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 장소 703-850-3714

마켓내 성업중인 한식·중식 식당하실분! 703-638-8876

랜드버에 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포함 7만 주 인이 나이가 있어 이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전이 있는 곳입니다 (산킴) 240-381-1615

기타

차와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버크레이크에서 멀레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일요일 아침 9시 버크레이크 헬터 C에서.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명인택시 공항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 571-246-1942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립니다.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노바대학교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 / 매운맛 직접 농사지는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703-470-5238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 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광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Falls Church VA 파크 안 최고 명당자리 매매 443-355-7700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919-1788

유화, 아크릴 개인 레슨 아동, 성인,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전공, 오래된 경력 / 개인 레슨 시간 조율. 703-489-6567

〈중고품/기타 매매〉

Car for Sale 2014 Chevrolet Sonic LT Auto 75,000 Miles, \$4,500 ▶연락처: 703-489-6926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 3스타 혼마 세트 2여행용 가방 1카트 가격조정이 가능 문자요망 240 500 0035

2012 Santa Fe SUV Silver 82,000 mile Good condition \$10,500 703-350-1986

4인용 고급 식탁, 세탁소용 주키 8700 (USA) 햄 미싱 매매 240-475-4166

몰만 필요한 저렴한 낚시대 세트 \$10 연한 베이지바탕 디자인 그라나이트 2'x2' \$45 / 2개 \$80 703-268-8669

은퇴로 멘탈랩 장비와 재료 총 \$500 240-423-9968

집안에 모아 둔 남녀 금, 다이아반지, 시계, 목걸이 및 팔찌 등 사실상. 문자요망 240-718-8050

남성골프채 DRIVE 1) 일제 KAMUI AISIRI 고반발 Gold 10도 / R \$600 2) PXG 081 1x+PROTO 10.5도 / R \$170 301-717-7960

〈건축/페인트〉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 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이디: wani6811 ▶571-331-6811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용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 / 상업용자 / 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애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버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중앙 냉난방 모든 식당 장비 수리/설치. 식당 장비 사고 팝니다. 에어컨 디션, 히트펌프, 가스 난로, 냉동고, 냉장고 ▶703-944-2266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443-280-1873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 2022
HomeAdvisor
Best Home Improvement Contractor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중앙유리

사위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무료견적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Door to Door Service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VA/DC/MD ↔ NY 정기운행
- 쓰레기 처리가능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귀국, 타주 차량운송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20년 전문!!
신용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사위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용자

마이클 장

NMSI Inc. NMLS #201332

-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닝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팎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비지니아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 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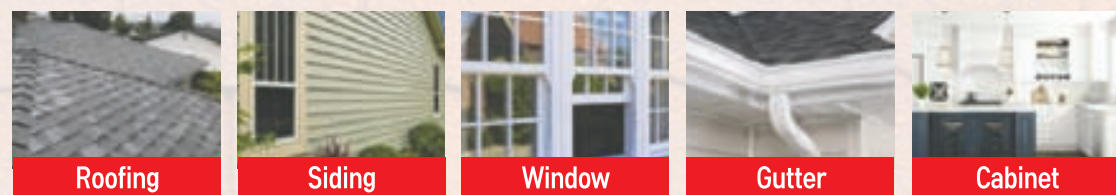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Before During After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도넛가게 매매
 멤피스, 테네시주
 월매상 \$35,000-\$37,000
 넷인컴 \$13,000-\$17,000
 렌트 \$1,800/월
 매매가 \$200,000
 HIGH QUALITY 고객
 백인지역, 알찬가게
 T. 678-451-9532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개인/비즈니스/용자전문
 -GOOD 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 환영
 -크레딧카드 한도 확장 분
 연체 전 연락요망
 -크레딧 안좋은신분 교정/빌드업
 -신용카드 한도만큼 증액해 현금 마련
 -역이민 계획중이신분
 -가계 폐업 고민 중 이신분
 25년
 경험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514.1244

비즈니스 상용 용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용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 | | | |
|------------------------------------|---|--------------------------------|
| 운영자금 용자
간단하고 빠른 용자 |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
| SBA 부동산 용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 SBA 7(a) 용자
10년 상환 | 기계장비 담보 용자
LTV 80%까지 |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고급 노인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방고원비
 Income Limit (섹션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애틀랜타

매매

법무사가 되세요

가장 확실한 직업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드레

아팔래치아 깊은 산의 정기를 품은 **眞品 천주산삼** chunjongsansam.com

삼마니 장석훈의 천주산삼

213.388.1234 | 718.879.2340

LA점 3908 Wilshire Blvd, LA, CA 90010 (구 대륙백화점) 라마다 호텔 뒷편 주차장 이용

뉴욕점 159-25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8 160가와 Northern 코너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위산역류
 통증 · 뱀살
불면증
 어지럼 · 두통

항문폴립
 요실금 · 전립선
이명·치질
 냉증 · 변비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아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삼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평약 산삼음욕단 도인력사당 50%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전립선
온열치료기 J2V-N
 www.book7080.com [핀지 보기 >](#)

인터넷에서 (700인의 편지) 검색
전립선 암 예방 및 치료 효과
 *30일 전액 환불제 실시 www.J2V.co.kr

- 가정에서 간편하고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대상 (생명공학 부문) 수상
- 경화되고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체를 정상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 야뇨, 잔뇨, 빈뇨 증상에 특히 효과적 입니다.
- 약물치료로 효과보지 못하신 분
- J2V 전립선치료기는 안전한 물리적 치료방법으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제품

 www.J2V.co.kr
전립선 온열치료기 새롭게 나왔습니다.
치료기능 향상 | 충전량 표시 | 약정화면 향상

드림바이오메디칼 (714)926-4607 2054 S. Euclid St #H. Anaheim, CA 92802

전대추 판매, 11월 13일 부터!!

좋은 전대추를 농장에서 직주문 하세요!

건대추 미주 전지역 운송비 포함 가격

\$160 /10LBS·1BOX \$13/lb 대추	\$130 /10LBS·1BOX \$10/lb 대추	\$100 /10LBS·1BOX \$7/lb 대추
--	---------------------------------	--------------------------------

* 하와이, 알래스카, 캐나다 추가운송요금 * \$7/lb 대추는 \$9/lb와 품질은 같으나 사이즈가 조금 작습니다.
 * Pay by "Zelle" or Check · No Credit Card

전화주문 714.833.4988 (Mrs. Han You)

중국산 대추 : NO
 농약사용 : NO
 화학비료 사용 : NO
 감미료첨가 : NO
 찌서말린대추 : NO
 묵은해 대추 : NO

숙성된 퇴비를 듬뿍 사용하여 재배한 양질의 대추를 100% 천연광으로 정성껏 건조시켜 맛과 영양 보존 상태가 최고인 고급 건강 햇 대추 입니다.

신선 농원 714.833.4988
 2060 Darby St. San Bernardino CA 92407 **농장방문시 전화예약 필수**

부동산 최고의 권위!

현대부동산

법원 경매 전문!!
은행집 전문!!
 싼 가격으로 집 장만 하세요!!

추천 매물

- \$220,000 (Annandale)**
 콘도, 방1, 화장실1, 완전 수리된 Updated Condo, 세탁기, 건조기 있음, 700 s.f., Remodeled Kitchen, Granite Counter Tops, SS Appliances,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 \$299,900 (Annandale)**
 콘도, 방3, 화장실2, 엘리베이터, 나무마루, Granite Counter Tops, 1,132 s.f., SS Appliances, H-Mart 가깝음, 밝고 환한 집
- \$420,000 (Woodbridge)**
 2007년 새단지, 새타운하우스 콘도, 방3, 화장실2½, 3&4층, 2,366 s.f., 1 Car Garage, 고급스러운 부엌, 탁트인 구조, 밝고 환한 집.
- \$450,000 (Centreville)**
 타운하우스 3Level, 방3, 화장실3, 완전하게 Up Grade 된 예쁜 타운 하우스, 새 나무마루, Updated Kitchen, Updated Basement, Yard Fenced Back
- \$700,000 (Centreville)**
 단독주택, 2 Car Garage, 방3, Full Bath 3개, 나무마루, Gourmet Kitchen, 잘꾸며진 지하실, 밝고 환한집.
- \$812,000 (Annandale)**
 새 타운하우스, 고급 빌더가 지은 콘도, 2 Car Garage, 방3, 화장실3½, 1,956 s.f. 공사중이나 곧 준공될 예정인 집주, Luxury 타운하우스

특보!! 특보!! 특보!!

콘도 (Clifton) \$339,900
 방2, 화장실2, 최근 Update한 집 (Kitchen & Bathroom), New Appliances, 나무마루, New HV/AC H-Mart 가까운 동네

Special! Special! Special!

콘도 (Centreville) \$318,000
 방2, 화장실2, 1,038 s.f., 잘 관리되고 Update 된 집,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탁트인 구조, Window & Dryer, 숲과 파킹장이 보이는 넓은 발코니, Lotte Mart 근처.

콘도 (Fairfax) \$395,000
 방1, 큰 Den1, 화장실1, Metro역 가깝,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 Tops, Hardwood Floors, New Carpet, New Washer & Dryer, 편리한 1층(출입문 거리 & 건물)

렌트 문의 환영합니다!

- 1. 타운하우스 (Woodbridge) \$2500**
 방3, 화장실2½, 1 Car Gar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 2. 타운하우스 (Manassas) \$2500**
 방3, 화장실2½, 1 Car Garage, End Unit 나무마루, Costco 1분거리, 교통편리
- 3. 타운하우스 (Manassas) \$2400**
 방3, 화장실3½,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3개층 모두 나무마루, Costco와 Walmart 가깝음 동네
- 4. 콘도 (Annandale) \$1850**
 방2, 화장실1, 엘리베이터, 남향, 밝고 환한 집,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Manassas

새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End Unit 2006년 새단지, 방3, 화2½, Corian Counter tops, SS Appliances, Community(Playground, Basketball, Pool and Gazebo), Bay window

\$474,900

Centreville

타운하우스, 2 차고, End Unit, 1,896 s.f., 방4, 화3½, Gorgeous! 3 Level Bump Out, Update 완벽하게 된 타운하우스, 나무마루, Update된 주방& 욕실, 넓은 Desk, 탁트인구조, Walkout Basement

\$749,900

Annamdale

타운하우스, 예년대일 중심가, 방4, 화3½, Upgrade 된 집, 정면 발코니, Hardwood Floors, Granite Counter Tops, 나무마루, Patio, 밝고 환한 집, 쇼핑센터 가깝음, 교통 편리

\$540,000

Centreville

콘도, 방2, 화2, Fireplace, Washer & Dryer, Tops Floor, Three Car Garage, H-Mart 가깝음

\$299,000

Reston

타운하우스 3Level, 방2, 화2½, Kitchen with Granite Counter tops & Back, Splash & Tile Floor, Updated Bathrooms, Wood Floors, 6 feet Fence, Fireplace, 숲이 보이는 Deck, Walkout Basement

\$480,000

Vienna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End Unit, Vienna Metro 역 바로 앞, 방3, 화3½ Hardwood Floors in the main level 고급스런 부엌 (Granite Counter tops) 탁트인 밝은 집, Walkout Basement 넓은 Deck, Fenced Backyard.

\$825,000

Bristow


타운하우스, 2 Car Garage, 2011년 방3, 화2½, 2,300 s.f., 새 집, 넓은 발코니, Hardwood Floors, Granite Counter tops, Walkout Basement, H-Mart 가깝, 뒷마당

\$550,000

Lorton

타운하우스, 1 Car Garage, 1999년 방3, 화2½, 2,252 s.f., 2100 sq. ft. 9 Feet Ceiling, Hardwood Floors, Recreation Room, Granite Counter tops, 1 Level, Bay Window.

\$549,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부동산 경매 상담 환영합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아이웨이 진행함

주백매매, 상가매매 상담 전화 환영합니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